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귀한일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로서 선교 사로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 이름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2년 7월 16일 (토) 제 1881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교회공동체에서 최선의 대안을 같이 찾아 나가야 한다!

라이프웨이, 70% 크리스천 여성 낙태 경험, '원치 않는 임신' 한 여성 교인 교회 우선순위 사역 대상

연방대법원에 의해 낙태가 금지된 미국 사회에서 보수, 복음주의 진영은 현재 촉박을 들고 있다. 1973년 '로 vs. 웨이드' 판결이후, 거의 반세기 동안 죽임의 문화가 아닌 살림의 문화 추진과 실현을 위해, 진보 진영과 끈질긴 이념 싸움에서 드디어 승리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이념이 아닌 현실에서 보수,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적인 대안으로 실제로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부득이하게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다가서야 한다. 실제로, 낙태를 한 10명의 여성 중 크리스천이라고 밝힌 7명이 낙태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낙태

를 결정한 그들이 교회 리더들이나 목회자에게 상담하고 같이 해결책을 위한 기도를 드린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형편이다. 다시 말해서,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무도 모르게 낙태를 생각하는 크리스천 여성들에게 교회는 무장 해제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의 문제를 다가오고 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현재 미국 교회 여성들의 낙태 현실과 이를 진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사점을 짚어준다(7 in 10 Women Who Have Had an Abortion Identify as a Christian).



"외로움 팬데믹", 교회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TGC, 트리니티 커뮤니티 교회 제레미 러먼목사의 '외로움 전염병' 대처 방안 소개

사회적으로 서로를 연결하는 기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로워한다. 저렴한 전화 통화와 무료 이메일에도 불구하고 소통은 줄어들고 있다. 모두가 다 자동차를 갖고 있고 항공 여행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 볼링도 함께 치다가 혼자 치는 서서히 늘어나더니 소셜 미디어가 넘치는 이제는 아예 볼링 치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그저 화면을 바라보면서 혼자 스코를 할 뿐이다. 어쩌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이 심지어 트렌드가 되어버렸을까? 이 외로움이라는 전염병에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서구 공동체는 급격히 쇠퇴하고 있으며 급진적 개인주의는 가장 현실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급진적 개인주의는 전례 없는 사회적 고립과 21세기 미국 문화 특유의 깊은 외로움을 낳았다. 인간이 관계적 존재라는 사실, 이 점은 기독교 신학에서야 오래전부터 주창되어온 것이지만 이제는 신경과학조차도 뒷받침하는 현실이 되었다. 그렇기에 깊은 고립을 낳는 상황은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 자신을 사회적 존재로 이해함으로 우리는 교회와 세상에서 사회적 연결과 우정,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How Your Church Can Respond to the Loneliness Epidemic).

올해 초 UCLA가 개발한 외로움 척도(Loneliness Scale)에 기초하여 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그나(Cigna) 연구에 따르면, 18세에서 22세 사이가 72세 이상보다 외로움을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학계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우리 각자는 다 하나의 외로운 국가이다. (3면으로 계속)



북미 전역의 임신 센터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케어 넷(Care Net)'이 후원한 2015년 라이프웨이 리서치 연구에 따르면, 낙태를 한 여성 10명 중 7명이 크리스천이라고 밝혔다. 세분해서 보면, 낙태한 경험이 있는 여성의 70%가 크리스천들로, 가톨릭(27%), 개신교(26%), 독립교단(15%), 정교회(2%)가 포함된다. 개신교 중에서는 침례교(33%), 감리교(11%), 장로교(10%) 또는 루터교(9%)로 구분이 된다.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 중 불가지론자(8%), 무신론자(4%), 유대인(3%), 이슬람교도(2%), 힌두교도(1%), 불교도(1%), 후기 성도 또는 몰몬(1%) 또는 여호와의 증인(1%). 또 다른 3%는 "기타"라고 말했고, 7%는 종교적 선호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종교적 인구 통계학적 비율 중 많은 부분은 크리스천이 미국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는 퓨리서치의 종교 조망 연구와 매우 유사하다. 자신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인지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낙태를 한 여성의 16%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낙태 경험이 있다고 자칭하는 기독교 여성 중 23%가 자신이 복음주의자라고 말한다.

낙태하는 대부분 여성들은 크리스천으로서 적어도 가끔 교회에 출석하며 일부는 주일이면 거의 출석한다. 첫 낙태 당시 36%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중 6%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20%는 일주일에 한 번, 11%는 한 달에 두 번 교회에 출석했다고 응답했다. 또 다른 8%는 당시 종교적인 휴일에만 참석했다고 답하고, 24%는 거의 가지 않는다고 답했다.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의 30%는 첫 임신 당시 낙태를 전혀 하지 않았다. 낙태하고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밝힌 여성 중 절반 이상이 현재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 출석한다고 답했다. 그중 8%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27%는

일주일에 한 번, 17%는 교회에 한 달에 한두 번씩 다니고 있다. 정규 교인의 절반(52%)은 여전히 낙태에 대해 교회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5명 중 2명 미만(38%)이 자신의 교회에서 자신이 낙태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대부분 교회나 교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따라서 낙태를 경험한 여성의 절반 미만이 교회가 임신 선택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라고 믿고(38%), 임신 선택에 대해 정확한 조언을 제공하고(30%),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여성

을 도움 준비가 되어 있다(41%)고 응답했다. 절반(51%)은 교회에 계획되지 않은 임신 기간 동안, 낙태 아닌 다른 선택을 논의할 준비가 된 사역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낙태를 경험한 여성 3명 중 2명은 임신한 복신 여성(65%)을 정죄하고, 낙태를 고려하는 여성에 대해 혐담을 하기에, 교회에서는 선택의 여지 없이, 그저 침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64%). 목회자들에 대한 이들의 태도 역시 교회에 대한 이들의 태도를 많이 반영한다. 낙태를 경험한 여성의 43%만이 낙태에 대해 목사와 이야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한다. 절반(49%)은 용서에 대한 목사의 가르침이 중절된 임신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5명 중 2명 미만(39%)은 목회자들이 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여성이 직면하는 압력에 민감하다는 데 동의한다. 이러한 여성들은 돌보는 사람(33%~16%)이나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26%~13%)에 비해 교회로부터 심판이나 정죄의 반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거나 받았다고 말할 가능성이 두 배이다. (2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3면	 푸른초장 백운영 목사 4면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 이길호 목사 7면
---	---	---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카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물: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2022 전문강사스쿨 신입생 모집요강

문의·박재민 전도사(213-220-6729, Jenny515280@gmail.com)

이용규 목사

성경 강해 설교집을 보내드립니다.

(1973년도에 LA에서 동부장로교회 개척, 43년간 시무, 2016년 소천)

“본 성경 강해 설교집을 통하여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전하고자 하는 설교자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 저자의 머리말 중에서 -



설교집 웹사이트 www.easternpresbyterian.church

설교집을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로 신청하시거나 이메일로 받으실 주소를 보내주시면 미국 내 모든 지역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설교집 신청 LA 동부장로교회
담당: 유영아 전도사 (213)505-7831
신청 이메일 427030@gmail.com

LA 동부장로교회

Eastern Presbyterian Church
4270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3-3261

담임 김정오 목사
www.epcla.org

강해 설교집 목록

제1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제22권 승리의 신앙생활
제2권 아가서 강해	제23권 선한 목자와 양
제3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24권 위대한 믿음의 유산
제4권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제25권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제5권 썩지 않는 면류관	제26권 빌립보서 강해
제6권 스가랴서 강해설교	제27권 영원히 남는 생활
제7권 위기를 이기는 길	제28권 시온으로 가는 큰 길
제8권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	제29권 베드로전후서 강해
제9권 롯기서 강해	제30권 택함받은 백성의 축복
제10권 새 천년에 할 일	제31권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제11권 후회함이 없는 삶	제32권 간추린 신학
제12권 구원 얻는 자의 할 일	제33권 장차 올 영구한 도성
제13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제34권 위대한 사랑
제14권 감추인 보화와 진주	제35권 대살로니가전후서 강해
제15권 하늘의 시민권	제36권 큰 산아 평지가 되라
제16권 진정된 평화	제37권 경건한 신앙생활
제17권 하나님의 약속	제38권 옛적 선한 길로 행하라
제18권 십자가의 도	제39권 그리스도의 승리
제19권 새벽을 깨우라	제40권 감찰의 영광
제20권 인간의 복된 사명	제41권 세미한 소리를 들으라
제21권 인생의 바른 길	제42권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해방

제 1권부터 제 42권까지의 방대한 설교를 색인으로 정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0여 편의 설교에 대한 INDEX를 소책자로 출판하였기에 함께 보내드립니다.

발행인 칼럼

코끼리를 울린 사람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태국에서 “코끼리 울리기 대회”가 열렸다. 거액의 상금이 걸려 있는 터라 너도나도 나서서 코끼리를 울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때 누군가가 나서서 코끼리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사람은 코끼리 귀에 대고 잠시 무슨 말인가를 건넸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코끼리가 평평 우는 것이다. 당연히 그 대회의 우승자는 코끼리를 울게 한 그 사람이었다. 당신은 누구시며 무슨 말을 했기에 코끼리를 저렇게 울게 했냐며 질문이 이어졌다. 그 사람은 대답했다. “나는 한국 선교사입니다. 코끼리에게 선교사에서 겪었던 일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운 것입니다.” 선교사역의 어려움을 전해보려고 누군가 만든 이야기를 살짝 변화시켜 보았다.

지난 월요일(11일)부터 목요일(14일)까지 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14일)가 있었다. 4년마다 열리던 대회가 팬데믹 때문에 6년 만에 재개되었다. “예수, 온 인류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뜨거운 예배, 다양한 강의, 놀라운 간증, 진지한 토론, 즐거운 교제 등의 시간이 이어졌다.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필요한 선교대회가 열린 것이다. 참여한 모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어느 한 분의 이야기라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노래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끝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선교의 길은 눈물의 길을 넘어 순교의 길이다.

현대의 세속화는 무섭다. 이미 모든 영역의 세속화 바람은 거세게 불어왔다. 영적인 영역에도 그렇다. 신학이 세속화되고 예배도 세속화되었다. 이제는 선교도 세속화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대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시도가 선교 현장 곳곳에서 목격된다고 한다. 눈물로서 걸으려는 선교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죽음으로 선교하겠다고 새롭게 헌신하는 사람은 찾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교사님 계시기에 위로가 된다.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한 외침이다. “당신이 가진 무기는 죽이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인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죽어 순교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세속화를 막는 유일한 길은 눈물의 선교이다. 순교의 선교이다. 눈물 흘리며 선교하다 죽겠다고 다짐하는 선교사를 막아설 세력이 세상 어디에 있던 말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다. 성육신의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시어 눈물의 사역을 하셨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 5:7) 선교에 가장 적절한 모델이 있다면 성육신의 모델이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 눈물도 있었고 죽음도 있으셨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으셨다면, 눈물이 없으셨다면, 죽음이 없으셨다면 오늘날 우리의 구원은 없었다. 왜 선교 이야기에 코끼리만 울겠는가.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수 많은 “뉴스 침입”, 뉴스 회피하는 사람들 점점 늘어간다!

BBC, 2022 디지털 뉴스보고, “기분을 가라앉게 한다” 는 이유로 뉴스를 외면하는 사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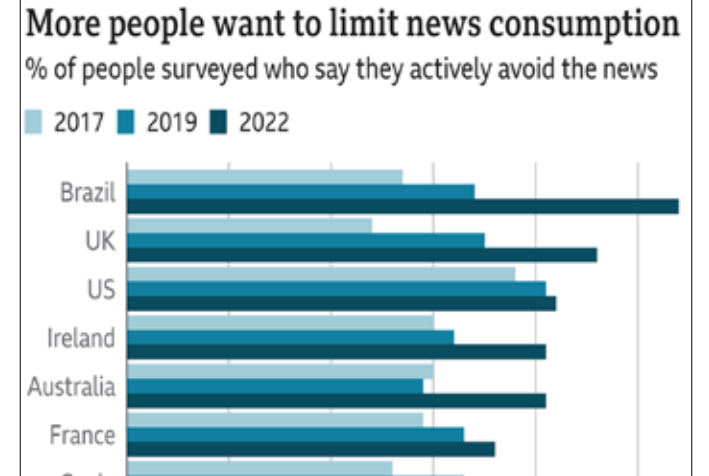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의 '2022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 따르면, 10명 중 거의 4명(38%)이 '종종' 또는 '때때로' 뉴스를 피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2017년에 29%가 '그렇다'고 한 비율에서 증가한 수치다. 영국과 브라질에선 지난 5년간 뉴스를 피하는 사람들의 수가 두 배 증가한 각각 46%와 54%로 나타났다. 응답자 36% 가운데 특히 35세 미만은 뉴스가 기분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이슈들 때문에 단신 뉴스, 뉴스 프로그램, 기사를 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2015년, 뉴스에 '매우' 또는 '극도'로 관심이 있다고 한 응답자가 67%로 집계됐지만, 이번 조사에선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를 기록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의 응답자의 거의 절반인 43%가 뉴스 의제가 반복되는 것을 뉴스를 꺼리는 이유로 답했다. 특히 너무 많은 정치 뉴스와 코로나 관련 보도가 지목됐다. 영국의 한 여성 응답자는 "솔직히 나는 주류 언론 뉴스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다"며 "뉴스 내용이 반복적이고 부정적인 것 같다"고 전했다(Digital News Report: Depressing stories turning more people off).

뉴스의 신뢰도 역시 영향을 끼쳤다. 조사 대상자의 29%가 뉴스를 신뢰할 수 없거나 편파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조사 대상 국가의 절반에서 신뢰도가 떨어졌고 작년과 비교해서는 7개 국가에서만 상승했다. 그러나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높아져 믿음만한 미디어의 중요성이 강화된 것으로도 풀이된다. 평균적으로 응답자 42%가 상당수의 뉴스를 '대부분 신뢰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한국 응답자는 30% 만이 그렇다고 답해, 아시아 대상 국가에선 두 번째로 낮은 뉴스 신뢰도를 보였다.

뉴스를 잘 안 보는 이유에 대해선 '피하고 싶은 언젠으로 이어져서'(17%), '무력감을 느끼게 해서'(16%)라는 답변이 나왔고, 아예 '모든 뉴스를 피한다'는 응답도 5%에 달했다. 이번 조사엔 46개국에서 93,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BBC 미디어&예술 전문 기자의 분석에 따르면, 뉴스를 외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신호이다. 코로나 사태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경제적, 사회적 영향까지 전 세계는 불안한 일들로 넘쳐났다. 사태가 진정됐다고 보도하는 뉴스들이 드물어졌을 정도다.

과연 국제 정세는 수십 년 전과 비교해 훨씬 악화한 걸까? 과거와 달리 현대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양의 보도에 노출된다. 10년 전만 해도 59%의 사람들은 매주 종이 신문을 읽었다. 그랬던 것이 지금은 17%로 떨어졌다. 10년 전 79%의 사람들은 각 방송사의 메인뉴스를 정기적으로 시청했지만, 지금은 그 비율이 53%로 줄었다. 온라인 시대가 열리자 많은 사람은 집에 있는 컴퓨터로 뉴스를 접했다. 2022년 현재,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처음으로 뉴스를 접하는 압도적인 경로는 휴대전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예전엔 많은 이가 고정된 시간에 뉴스를 소비했다면, 알람과 팝업창이 넘치는 뉴스를 끊임없이 소비한다. 사방이 뉴스인 시대가 되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뉴스의 '침입'으로 우울감을 겪게 됐다. 뉴스 산업은 디지털미디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김 수의 감소로 수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답 가운데 하나는 최대한 많은 플랫폼을 통해 시청자와 독자에게 다가갈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틱톡은 업계의 개척자로 부상한 플랫폼 중 하나이다. '조니 템-허드 소송'과 같은 특정 주제의 영상 조회수는 수십억을 기록하기도 한다. 이제 영국에선 '뉴스 회피



자' 수가 '뉴스 중독자'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다. 2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했던 뉴스라는 상품이 이젠 많은 이의 일상 생활에 우울감을 주는 침입자 같은 신세가 돼버렸다. 뉴스 생산자들은 이에 주목해야 한다. 본 조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 마무리 됐지만, 로이터연구소는 폴란드와 독일 등 전쟁과 밀접한 5개국을 추가로 조사해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그 결과 사람들이 뉴스를 선택적으로 소비하고 회피하는 성향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어렵고 우울한 보도 내용 때문일 것이다.

이번 로이터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닉 뉴먼은 "이러한 연구 결과는 특히 뉴스 산업에 도전을 준다"며 "정치적 위기, 국제 분쟁, 세계적 유행병 등 언론인이 중시하는 주제들을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젊은 뉴스 소비자를 확보하는 것은 전통적인 뉴스 매체의 지속적인 도전과제다. 이번 조사에서 젊은이들은 뉴스 브랜드와의 연결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틱톡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뉴스를 접하다 보니 해당 뉴스가 어떤 브랜드 출처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언론사의 웹사이트나 앱에서 직접 뉴스를 접하는 비율은 4분의 1 미만(23%)으로 2018년 이후 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18세에서 24세의 응답자들은 소셜 미디어, 검색 엔진, 모바일 뉴스 모음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그램과 틱톡과 같은 좀 더 시각적인 플랫폼으로 뉴스 소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이들 플랫폼에선 예능성 콘텐츠와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크다.

교회공동체에서 최선의 대안...

〈1면에서 계속〉
그만큼 원치 않는 임신은 여성에게 사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낙태를 한 여성의 7%만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 교회의 누군가와 직접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결국 여성 4명 중 3명(76%)의 경우, 그들이 다니는 지역교회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계획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의도적으로 교회의 정보와 지침을 찾는 여성은 거의 없지만, 많은 여성이 낙태를 결정하기 전후에 예배를 드리려고 온다. 아마도 교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상치 못한 임신들

하게 될 여성, 현재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여성, 또는 과거에 낙태한 여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문제를 제기할 때 신중하고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성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886-4400 (대표)
 ·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3, July 4, and Nov. 28.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담임목사 청빙

오하이오 에쉬타블라지역에 소재한 에쉬타블라 한인교회(초교파)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실 담임목사님을 모십니다.

지원자격

- 정규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으로 목회 경험이 있는자
- 미국 거주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한국어와 영어 소통이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 이력서
- 본인 및 가족소개서(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포함)
- 최종학위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각 1부(사본)
-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동영상 2회분
- 추천인(목회자 only) 2명이상

제출처

이메일: sddkim206@gmail.com
 문의 및 연락처: (440)319-4596 | (440)822-9390
 우편메일: 2300 Austingburg Rd., Ashtabula, OH 44004

기타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마감: 2022년 8월30일

에쉬타블라 한인교회
 2300 Austinburg Rd., Ashtabula, OH 44004
 koreanashtabula@gmail.com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NYU School of Medicine 문자: 929-410-4475
 180 Madison Avenue # 3-23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New York, NY 10016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로움 팬데믹”, 교회공동체...

(1면에서 계속)

전직 외과 의사였던 비벡 머씨(Vivek Murthy) 박사는 외로움을 전염병이라고 부른 최초의 인물이다. 머씨는 외로움이 만성염증과 심장병, 관절염 및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교활한 유형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사망에 악영향을 미친다.

외로움은 현대 서구 문화에서나 만나는 전염병이라고 쉽게 주장할 수도 있다. 심장병에서 음란물 사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전염병 대부분은 외로운 마음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외로움은 개인주의 사회의 당연한 증상이다. 적지 않은 역사가와 철학자가 지난 70년 동안 개인주의의 부상을 추적했다.

철학적 관점에서 제임스 스미스(James K. A. Smith)는 종교적인 것에서 세속적인 것으로 전환한 서구 지성의 흐름은 자아와 의미에 대한 일차적 견해로서 공동체가 아닌 개인주의가 부상한 사실과 일치한다고 지적한다.

(과거에는) 사물도 중요했지만, 사회적 유대 자체도 매력적이고 신성하게 간주되었다.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를 인용하자면) “우리 조상이 살았던 마법에 걸린 다공성 세계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삶이었다.” ... 개인 의미의 핵심이 될 때, 그 결과 나타나는 사회의 본질적 원칙(atomism)은 이것이다. 자신이 더 이상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음새 없는 천이나 촘촘하게 짜인 사회적 조직이 아니다. 대신 “우리”는 사회적 “가스” 안에서 떠도는 개별 분자처럼 하나하나가 열기설기 모여서 이렇게 집합일 뿐이다.

영광한 곳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는 환멸에 빠진 개인으로서 나는 단지 단순히 자율성과 자존감이 필요한 개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깊은 관계로 연결된 공동체 속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외로움은 아프고 그 고통은 육체적 질병으로 발전하는데, 치료 방법은 약이 아닌 우정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공동체 내에서 서로 연결되도록 설계된 관계적 존재라는 사실을 모든 과학이 동의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관계의 모델이 된다. 그는 관계를 맺지 않았던 적이 없다. 그는 하

늘을 쫓으면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어머니의 태에서 조용히 자라서 태어났다. 평범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과 초기 성인기를 무명으로 생활한 후에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여 사역을 시작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또 겔세마네에서 함께 기도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어머니를 돌보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했다.

때때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기 위해 제자들을 떠났지만 대부분의 활동을 그들과 함께했다. 그의 삶과 사명은 그가 고립된 삶을 살기를 거부했음을 상기시킨다. 예수님에게 관계가 필수적이라면, 우리에게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관계를 위해 존재한다. 삼위일체 곧 영원히 관계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완전히 살아 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관계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 예수님이 역사상 가장 “완전하게 살았던” 인간이었기에, 누구라도 공동체 없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바쁘지만 관계는 끊어져 있다. 우리가 가진 여러 관계는 다 피상적이다. (소셜 미디어는 잘해야 외로움 해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두뇌와 마음은 할 일이 많아 정신없다고 소리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외로워서 고통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외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고립과 싸울 수 있을까? 고독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외로움이라는 전염병은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 육성을 우선시하도록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복음의 능력으로 외로움을 물리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

1. 등록을 통한 소속감 만들기

교인에서 우리는 단순히 “나는 헌신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속해 있습니다”라고 한다. 새로운 교인이 교회에 대한 공개적인 헌신을 선언한다면, 교회도 그들을 향한 공개적인 선언을 해야 한다. 초기 기독교를 연구하는 조셉 헬러맨(Joseph Hellerman)은 When the Church was Family(교회가 가족이었을 때)에서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잘 표현했다.

영성 형성은 주로 공동체라는 맥락에서 발생한다. 지역교회에서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만족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기 이해에서 더 발전하며, 하나님 및 다른 사람과 건전한 관계를 맺는 능력에서도 더 성숙해진다. 이것은 대인관계의 불화와 갈등 해결이라는 종종 지저분한 과정



을 통해서까지도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용감한 그리스도인에게 특히 해당한다. 장기적 인간관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정한 발전 여부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다. 한 교회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성장하기 마련이다.

헌신하도록 도전하라.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에 소속하도록 초대하라.

2. 생명을 주는 공동체를 우선시하라

한 달에 몇 번 누군가의 집에 모이는 소그룹 모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성인, 십대 및 어린이가 다르게 진정한 공동체의 리듬을 찾는 것이다. 소그룹은 달력에 표시한 시간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이다. 건강한 그룹은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또 지원한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현재 주일학교 공과공부, 주중 예배 또는 지역사회 봉사 등등을 통해 공동체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미 구축한 그런 공동체를 더 발전시킬 방안을 고민해 보라. 필요하다면 더 깊은 관계를 중

진하기 위한 전혀 새로운 공동체도 만들어 보라.

3. 공유하는 리더십에 대한 약속

외로움이 서구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또한 동시에 다양한 회중과 사역의 부족, 많은 지도자의 도덕적, 관계적 실패 등과 같이 몇 가지 전혀 다른 긴급한 과제도 함께 이해할 수 있다. 흔하게 발생하는 리더십의 실패는 가장 먼저 관계와 책임, 공유된 권위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회가 외로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면 “리더라면 외롭기 마련이다”는 논리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물론 회중이나 조직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리더십은 참으로 무거운 짐이지만, 그 리더십을 서로 나눔으로 외로움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 건 강한 장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으로 이뤄진 헌신된 팀과 함께 만들어 가는 목회는 한 명의 목사 또는 지도자의 부담을 줄이고 교회 사역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보호한다.

4. 우정과 공동체에 관한 가르침

많은 교회가 결혼, 육아, 가족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거나, 우정과 공동체에 대한 심도 깊은 설교 시리즈를 듣는 것은 드물다. 그러나 구약은 가족으로서 이스라엘의 소명, 다윗과 솔로몬의 우정, 그리고 우정과 충성에 관한 지혜를 강조한다. 신약은 예수님의 긴밀한 관계적 제자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증거, 서신서의 “서로”를 향한 명령,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누릴 영원한 교제의 소망에 대한 비전을 제공한다.

교회는 중점적으로 설교하는 내용을 홍보하기 마련이다. 우애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는 강단을 활용하여 외로움 전염병을 퇴치할 것이다.

5. 서로에게 헌신하라

서구 개인주의는 전례 없는 사회적 고립을 촉발시켰기에 우리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인간 본성과 공동체에 대한 성경적 비전을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힘든 일이다. 그래서 바울서신서는 희생적인 관계를 통해 지역교회 안에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라고 강조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로마서 12:10-13의 부르심을 점점 더 구체화하기를 바란다.



시론

맘이 없으면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최근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많은 우울한 소식 중의 하나는 경제적인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가상화폐의 몰락으로 부부가 딸의 생명을 끊고 자신들마저 스스로 생명을 끊는 고통스러운 뉴스가 최근 우리 곁에 들려왔습니다. 2009년 1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비트코인이 나온 이래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의 종

류만 해도 무려 18,000여 종류에 이를 만큼 가상화폐는 가히 세상의 마음과 눈을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가상화폐를 만들었던 가장 큰 동기 중의 하나는 특정한 국가가 자국 화폐의 통화량을 마음대로 늘림으로써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거래를 할 때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함께 줄이려는 목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블록체이라는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지 벌써 13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는 지금, 과연 처음 세워졌던 목적이 이뤄지고 있을까? 라는 질문에 ‘그렇지 못하다’라는 답변이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가의 개입 없이 자유로운 거래를 표방했지만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들로 인해 국가기관에서 더 크게 눈을 뜨고 감시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폐의 근본적인 목적 중의 하나인 ‘가치교환수단’으로 자리를 잡기보다는 오히려 가상화폐 그 자체가 끊임없이 변동함으로써 가치의 교환수단으로는 현실에서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6만 9천 불까지 올라갔던 비트코인 하나의 가치가 지금은 2만 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개수의 화폐가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되면 더 이상 교환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불가능하며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의 투자대상이나 될 뿐입니다. 현재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대부분 사람은 교환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구입해 놓으면 나중에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미래 투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나머지 2만여 개의 가상화폐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화폐의 기본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화폐라는 이름으로 지칭되며 그곳에 자신의 미래를 맡기다 실패한 수많은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설명 가격이 추락하기 이전에 다 처리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과연 신앙인으로서 가상화폐를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의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하라고 한다면 ‘수고와 맘을 흘려 그 결과로써 만들어지는 열매가 없다’는 점입니다. 가상화폐에 투자된 돈이 우리 삶에 필요한 어떤 상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이는 것이 전혀 아닌 문자 그대로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도박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한 얼굴에 맘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창조주의 엄중한 선언을 들었습니다(창 3:19). 이 근본적인 원칙에서 벗어나 맘 흘림이 없이 먹을 것을 가져가려는 그 모든 시도는 맘 흘리며 먹을 것을 얻으려는 그 누군가에게 필연적으로 고통과 아픔을 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창조주의 말씀 위에 담담하게 신실하게 걸어가는 신앙인이 점점 더 그리워집니다.

Advertisement for Grace Theological Seminary. Includes the seminary logo, the name 'GRACE THEOLOGICAL SEMINARY' in large letters, a list of 5 key features (84-year history, academic excellence, global reach, accreditation, and financial aid), a list of admission programs (Theology, Ministry, Cultural Anthropology, etc.), and contact information for Dr. Drew Flamm, including an email and phone number.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미국 연방 대법원... Go Go Go!!!

미국 연방 대법원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법기관이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권고와 동의로 임명하는데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한번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면 종신토록 직임을 감당하게 된

다. 단, 본인이 은퇴, 사직, 사망하거나 또는 탄핵 절차를 거칠 때만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다. 따라서 이 대법원은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의 정신과 양심에 관계없이 불변의 진리를 바로잡는 사법기관이다. 그런

데 문제는 대법관들이 교체될 때에 재임하는 대통령의 사상에 동의하는 법관을 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뚤어진 대통령의 지도력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시너 노트를 할 수밖에 없는 사법기관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오바마 통치 시절의 미국 연방 대법원은 창조 이래로 이어왔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바른 결혼 제도를 위한 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창조주와 순리를 양심의 범으로 믿고 살아왔던 진리편에 섰던 인류에게 결정적인 수치를 끼였다고 말았던 것이다.

불의의 날개로 달았던 오바마 대통령은 지구촌 구석구석을 날아다니면서 동성애를 권장, 보급하며 조장하는 일에 선봉장 역할을 했다. 우간다에 가서 동성애를 받아드리지 않으면 수억\$의 원조를 끊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놔다가 도리어 그런 원조 받지 않는다고 목살함으로 체면이 형편없이 구겨지는 수모를 당했음에도 동성애의 선구자 역할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양되면서 다시 보수파 법관 3명을 대치 임명함으로써 현재는 6대 3으로 보수적 법관이 절대 우위에 있게 되었다. 비록 트럼프는 실권을 했지만 며칠 전 대법원은 지난 49년 동안 시행해 오던 '로 대 웨이드' 판결-임신 15주 이후에도 낙태해오던 법을 폐기해 버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당장 13개 주에서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령을 발효한 상태로 돌려놓았다. 이로 인하여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농성 데모를 벌이고 있는 형편이지만 머지않아 식어지고 말 것이다. 거대한 기업들은 타주에 가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가 텍사스의 경우에는 주정부로부터 철퇴를 맞는 형편이 되어 앞으로 꼼짝없이 원래의 보수법을 지키고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고착되어가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수없이 뒤집어진 순리 법령들을 다시 제 자리로 돌려놓

을 청신호 탄으로 보아서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무시당하고 버려졌던 건국의 아버지들의 정신과 가치관에 부합한 기초적인 법령들을 하나하나 바로 세워가는 대법원이 될 수 있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4,5천년 전에 이미 타락할 때로 타락했던 소돔지역 남자들의 부끄러운 성폭행으로 남색한다는 영어의 단어 Sodomy를 만들어 낸 것은 인류의 씻을 수 없는 수치가 아닐 수 없었다. 세상에 어떤 생물들이 동성끼리 짝짓기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어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들이 동성끼리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된다는 말인가? 이런 해괴망측한 비상식적인 추행들을 도리어 합법화시켜 놓고 인권을 보장하는 자유국가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니 거리의 개들이 웃을 일이 아닌가!

조금 더 내용을 해부해 보면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다. 2000년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가

개혁주의 장로교회 본산지였던 네덜란드였다. 그 뒤를 이어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이태리, 한국 등 32개 국가가 동성애를 합법화하였다. 이들 국가는 하나같이 기독교 전통 신앙을 받아온 나라들이 어찌 이렇게 일제히 몰락을 했다는 말인가? 도리어 특정 계층에 예측돼 있는 무슬림 국가들과 유물론 사상을 신봉하는 러시아가 동성애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다. 과연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이 진리편에 서 있는가? 혼란스럽다. 어쨌거나 이번 미국 대법원의 바른 판결이 청신호탄이 되어 그동안 소수의 폭행자로 죽었던 참 희생자와 정의와 진리의 강수들이 썩어 악취를 풍기는 세상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대청소 기간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장하다... 미국 연방대법원

Go! Go! Go!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죽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줍니다. 히 9:27 보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이미 정해진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것은 사람에게 정해진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엔 결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으며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죽음이란 말 대신에 우회적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삶의 최후에 직면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죽음 이후 다가올 심판과 그 이후의 영생입니다. 영생의 기회는 이 땅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죽고 나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도 주시고 구원에 관한 충분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복음과 영생에 대한 약속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줍니다. 히 9:27 보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이미 정해진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것은 사람에게 정해진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엔 결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으며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죽음이란 말 대신에 우회적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삶의 최후에 직면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죽음 이후 다가올 심판과 그 이후의 영생입니다. 영생의 기회는 이 땅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죽고 나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도 주시고 구원에 관한 충분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복음과 영생에 대한 약속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메라 인식하고 카드로 결제합니다. 이렇게 기계의 편리함에 익숙해지다 보면 사람 안 만나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살아가게 되어 삶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세상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 지우는 전략입니다.

격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다보니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 극대화, 죄성이 극에 달했습니다. 종교 조차 자기만족과 자신의 성공만 추구하는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종교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조차 예배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기웃거립니다. 서구 교회가 죽어간 이유는 바로 인간 중심이 되어서 자기만족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예배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타협이 없는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런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 그리스도를 아는것이다 (3절)

그리스도를 알면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합니다. 요 8:31-32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를 알면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녀들에게 자유란 무엇 일까요? 부모의 속박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술 마시고 방탕하는 자유를 말하

에 태극 문양을 넣도록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 중입니다. 그 시작은 한국선교사님들의 선한 영향력 행사입니다. 그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병원을 세우고 의료봉사, 대학을 설립, 후에 한국의 여러 기업이 농업 개발 사업을 진행, 한때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서 농업 개발 사업을 가르치니까 이제 식량 문제 해결, 남는 곡식을 주변 국가에 수출, 그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기업의 사장님들이고 그분들은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오래전 조선에 같은 목적으로 왔던 선교사님들의 영생에 대한 확신과 뜨거운 가슴이 이제 한국 선교사들 역동적으로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말라위는 희한한 사람들이 와서 영생의 복음만 아니라 식량 문제를 해결하니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것은 복음이 들어간 나라의 전형적이 모습입니다. 영생에 뿌리를 내린 선한 능력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게 합니다.

영생의 확신

요 17: 1-3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겻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16장 마지막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떠날 것, 이제 너희에게 환란이 오고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권면합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가 당할 환란을 예비하라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승리는 교회를 위한 것이다. 바로 그 승리로 인하여 세상에서 환란 중에 평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겻세마네 기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준 권능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확신이 주어졌는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두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예수 안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2절)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에 관한 이야기는 이 세상의 주권

지게 하는 것으로 야담 때부터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지우는 일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한국 사회의 발원지인 IT 강국이란 현실이 얼마나 실제로 다가왔는지 가는 곳마다 카메라로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던 선교회에서 차를 빌려주어서 차를 몰고 이동하는데 주의를 주는 속도제한 카, 선 변경 카, 모든 신호등에 카, 주차장에도 전신 카로 카메라 공화국인 듯했습니다. 심지어는 강원도 산속에서 KWMC 준비 모임에 줌으로 진행하는데 뉴욕, LA, 시카고, DC에서 접속한 분들보다 더 전파력이 강했습니다. 한국은 기계로 사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주유소, 무인 주차장, 보통 주차할 때 카

사탄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꾸기 위해 한 일은 모든 초점을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 중의 죄로써 가장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신에게 세상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살라 하신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에만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없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 없어집니다. 기계 문명이 들어오면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인본주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르네상스란 16세기 인간성 회복을 위한 문화 혁신 운동으로 부흥, 재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여 인본주의 사상이 꽃을 피우게 되고 모든 예술에서 하나님을 배

광에 몰입되는 예배를 드러야 합니다. 예배 때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곳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제물입니다. 제물이란 드러져야 제맛이 납니다. 활활 태워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예배이며 바로 모든 권세를 잡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찬란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도취되어 내 문제가 더 이상 문제 같아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될 때 마음에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는 것은 아닙니다. 요 8: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유, 즉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 이 자유는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죄성에 묶여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유를 맞보면 그 맛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나에게 보장한 자유는 죽음으로부터 자유, 이 땅의 권세, 이 세상에 속박된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 가치와 억압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영생이 불확실하면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에 선교계는 아프리카 말라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말라위 정부 자신들의 국기

영생에 대한 확신은 이런 귀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만 아니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깨어나서 잘 때까지, 차를 타고 내릴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시험을 앞두고, 그 어느 때나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특권이 있으므로 하늘의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 기도로 진행, 기도가 구체적으로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이사야 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마라, 놀라지말라 나는 네 하나님 이 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윗조차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삶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두려움에서 떨 때 기도할 수 있으므로 모든 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말씀으로 힘주시거나 사람을 보내 주시거나 환경을 바꿔 주시는 경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붙잡고 계시기에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여 이손을 꼭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몸을, 폭풍우 흑암속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하소서'이 찬양 곡처럼 주님께서 꼭 잡은 손이 영생의 확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ypack@hotmail.com

가끔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인연을 거꾸로 읽으면 연인이 되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들다'가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Impossible이라는 단어에 점 하나를 찍으면 I'm possible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점 하나로, 행동 하나로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다.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면 좋겠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보니 이런저런 조어(造語) 놀이가 등장하는 것 같다. 어려움 중에서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행간에 읽히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어 놀이 정도로 위기가 없어지지 않는다.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는 다른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위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교회의 위기가 아닌 다만 연합한 성도인 우리 '신앙의 위기' 일뿐인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성도의 성도 다음을 말씀으로 지켜내지 못할 때, 그것이 결국 위기가 되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다.

신앙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는 다른 아닌 예배의 위기다. 예배는 우리의 전 인생을 살리고도 남음이 있다. 한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고 있다면, 그는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될 것이고, 만일에 어떤 한 사람이 예배에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이미 실패한 미래를 살고 있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에 최고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은 '예배'이다. 진실한 삶의 회복을 원하는가? 세상의 변혁을 원하고 있는가? 삶의 승리자로 영원히

좋은 날이면 고기잡이를 해서 좋은 수익을 얻고, 날씨가 맑은 날이면 그저 하늘만 원망하며 살던 평범한 어부들이었다. 그러나 저들에게 차별 없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 단 한번도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적이 없던 저들이, 평생에 단 한번도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던 저들이, 감히 쳐다 볼 수도 없고 생각의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을 땅끝을 보고 날아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지구 반대편까지도 서슴치 않고 달려갔으며, 타향과 타국에서 순교의 귀한 재물이 되기까지 아름다운 비저너리의 삶을 살아내었던 것이다.

복음의 말씀들이 그대로 믿어지게 되니, 아무런 거칠 것이 없었던 것이다. 원래 복음과 말씀이 그런 능력(DUNAMIS)을 본질로서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복음이 어디서 들려지는가?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듣고, 반응하며, 마침내 평범하기 그지 없던 인생이 위대한 변화의 삶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축복과 회복의 원형이다. 영적인 위대한 꿈도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꾸게 되는 것이

떨리는 말이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에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가 사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다. 기본기가 단단해질 때, 하늘을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영적 강자가 되어 믿음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복잡한 세상, 온전한 성도

온전한 사람, 즉 성장과 성숙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아는 것은 무엇인가? 지적인 것을 말한다. 믿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행함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아는 것에 따라 행하지는 않지만, 믿는 바에 따라서는 행하게 되는 존재이다. 그래서 신앙과 삶의 원리도, 그저 아는 데서만 끝나면 절대 신앙이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아는 것과 믿는 일의 중심에 '예배와 복된 교회 생활'이 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배우고 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라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저는 교회 예배 때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보고 점심 식사도 같이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제가 볼 때 이것은 분명 말세의 징조 같은 데 어떻게 크리스찬은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 실비치 KIM 권사

A: 코로나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주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지금은 세상 종말의 때(End Time)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징조입니다. 예수님은 눅 21장에서 종말의 징조를 강론하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지구 종말에 나타나는 땅의 징조는 전쟁, 기근, 전염병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은 세계 멸망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계속 넘는다면 더 큰 재난이 올 것이다”

10대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 1) 새로운 합성 바이러스의 위협 2) 인간 통제를 벗어난 인공지능 3) 핵전쟁의 위협 4) 지구 온난화를 통한 기후 재앙 5) 지구를 빨아들이는 인공 블랙홀 6) 스스로 진화하는 변종 바이러스 7) 외계 생명체의 공격 8) 슈퍼 화산 폭발 9) 소행성 충돌 10) 별의 붕괴 라고 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종말의 징조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말한 세계 멸망 6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바이러스는 몸 안에 들어가면 인간의 면역세포인 인터페론과 자연 살해세포인 NK 세포(natural killer cell)가 1차로 그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발열 현상과 염증 현상이 몸에 일어나게 됩니다. 바이러스는 열에 약합니다. 감기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몸에 열이 나는 것은 면역체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인체안에는 T세포가 천 억개 있고 종류도 2,500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바이러스는 죽지 않고 몸 안에 살아남기 위해 변이를 일으켜 보다 강력한 변종 바이러스로 바뀌기도 하는데 이것을 RNA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변종 바이러스는 인간 면역체계(Immuno system)가 인식하지 못하는 바이러스이기에 결국은 그 바이러스는 숙주인 그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생겨날 가능성이 큼니다. 앞으로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를 통해 연구한 새로운 합성 바이러스가 생물학 세균무기에 사용된다면 그 결과는 현재보다 수십 배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의 고든창 변호사에 의하면 앞으로 3차대전은 이 생물학 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북한에도 강력한 생물학 무기가 많다고 합니다. 종말의 전쟁은 A(Atomic Bomb) B(Biological Bomb) C(Chemical bomb) 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인류 멸망 시나리오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창조물의 질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입니다. 핵이나 유전기술 등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계속 넘는다면 더 큰 재난이 올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과학기술에 의해 인간이 스스로 희생되어지고 자폭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삶의 변화와 세상의 변혁

- 신앙, 교회, 예배-

단어이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과 한인 이민교회가 큰 위기를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었던 탓에, 교회로 모이는 성도의 숫자도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했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가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다. 조국 한국에서는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곳 미국의 대도시의 교회들에도 작은 교회들은 재정과 시설 모든 면에서 큰 위기의 소식이 전파되었다.

게다가 백신과 예방의학 등으로 많은 면에서 상황과 여건이 호전되었음에도, 그동안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했던, 더 나은 시설과 환경을 따라 영상물 자체에 집중하던 '눈길과 손길'이 그들의 발걸음을 여전히 가정 안에 묶어두게 만든 것이다. 마음껏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에도 그 습관을 유지하거나 혹은 가까운 곳의 대형 교회나 이동하는 예가 아주 많아진 것이다. 그래서 이를 두고 입을 모아 '교회의 건강하지 못함,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근본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과연 교회에 위기라는 말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데, 어떻게 교회가 위기를 당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있을 수 없는 말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어려움에 있다고 한다

기억되고, 주님의 칭찬과 인정과 상급 받는 삶을 원하는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 예배의 승리가 되어야 한다. 모든 삶의 회복과 축복은 바로 거기서 시작하고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소중한 예배를 상실한 채로 살고 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드러지는 것인데, 사랑은 결코 '시간 때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자신의 종교성만 채우기 위한 예배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러지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는데, 이런 그 은혜를 길어들이지 않고 이젠 자신을 타당화 시켜준다. 지금은 은혜받지 못하지만, 과거에 나도 은혜를 입은 때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현재 자신의 신앙생활이 스스로가 생각해도 함량 미달임을 증명하는 말일 따름이다.

이러한 종말 시대에,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다시 예배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모두가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 회복의 도구인 예배에 전심전신을 기울여야 한다. 이 회복의 도구인 예배에 전심전신을 기울여야 한다. 이 회복의 도구인 예배에 전심전신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와 예배, 신앙의 기본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날씨가

다. 거기서 새로운 은혜의 출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집에서 기러기를 키워서 그 알을 파는 직업을 가진 이가 있다. 기러기 알과 기름이 동맥경화, 간염, 지방간에 효능이 있다는 소식에 꽤 관망은 직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러기는 철새가 아닌가? 철새는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오르는 그런 동물인데, 어떻게 집에서 키울 수 있단 말인가? 영업비밀 같은 이야기이지만, 기러기의 털을 몇개 빼 버리면, 주위만 땀방울만 다,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다. 바다를 지나고, 구름을 벗 삼아, V자 대형으로 멀리 멀리 날아가던 기러기가 이제는 시골 동네 아저씨의 애완용 집 새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원래 기러기라는 존재가, 창공을 날아서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뭔가를 빼 버리면 시시한 집새가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독수리 날개처럼 오름과 같은 삶, 높은 곳을 다니는 사슴의 발과 같은 삶을 원하시는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몰라도, 깃털이 빠져 버린 기러기가 되어 애완용 집 새가 되거나, 독수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참새처럼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예배의 실패'가 자리잡고 있다. '예배'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가슴

하게 된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다. 삶이 복잡할수록 교회와 예배 앞에 단순하게 반응해야 한다. 지나치게 현실에 집착하고 몰두한 나머지, 기도할 힘과 시간도 놓쳐버리며 세상일에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게 된다.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 여호와와의 성전 제단,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예배자로 나아와한다. 현실의 문제에 몰입하고 매이지 않으면서, 하늘의 하나님과 만나는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사를 제치고, 몸을 움직여

위기의 시대, 삶의 변화와 세상의 변혁을 도모하려면, 삶의 모든 일들 앞에 단순함이 필요하다. 신앙의 연륜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어간다. 그 정점에 예배자가 존재한다. 참된 예배자는 복잡한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이 기쁨으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잘 따라가는 자(계 14:4)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만사를 제쳐두고, 몸을 움직여 교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구별된 장소인 교회와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살아가는 것이다.

davidnjon@yahoo.com

피종진 목사 7월 부흥성회



- 숭실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사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 1(금) 미국(USA)뉴욕 SeokWang Church 예배회복을위한 NYSKC Family Conference 위성교회 주최 NYSKC World Mission (HQ 뉴욕) 총재 피종진 목사 (서울) 대표회장 최고선 목사 (뉴욕) 실무회장 이병환 목사 (워싱턴 DC) 사무총장 (213) 249-2467 (LA) 부천 멜리교회 (평강자 목사) 010-8387-8088 부천시 송내동 376번지 천안 위대한 약속교회 (윤재민 목사 임미향 목사) 010-6352-0691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주최 With 부흥협의회 (대표총재 장사무엘 목사)
- 6(수) 저녁 충남 아산 은혜기도원 (원장 이은혜 목사) 010-8365-2456 주최 뉴글로벌 부흥사회 (대표회장 정태운 목사) (사) 한국성령교회 총연합회 제14회 정령교회의날 행사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장소 서울 현명대학교 (총장 한영훈 목사) (02) 2669-2200
- 10(주) 오후 김포 감림교회 (조경숙 목사) 010-8222-1992 한국교회 예배회복운동본부 제주 컨퍼런스 장소 제주 오소리 호텔 Lecture Hall
- 14(목)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010-2296-0675 주최 한국 기독교 부흥사 단체 총연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중앙대표회장 오병환 목사 준비위원장 김우영 목사 010-8898-9141 구미 덕택제일교회 (정태운 목사) 010-2296-0675
- 20(수) 오전 강남금식기도원 (원장 김성광 목사 교무부장 김진성 목사) 21(목) 오후 흥천성령교회 (원장 남기수 목사) 010-8680-2999 주최 (사) 한국복음화운동본부 (대표총재 피종진 총재 이종인 대표회장 김재홍 목사) 010-9068-9197 한기부 지도자회 (대표회장 장대영 목사 사무총장 김수용 목사 장소 인천 기쁨의 교회 (이중선 목사) 인천 부평구 일산로 81 천안 설화산기도원 (노베드로 목사) 010-8234-0690
- 25(월)~27(수) 29(금) 2시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02-6181-9182 주최 한미부흥사연합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귀범 목사 (한국) 010-2238-3999 이성우 목사 (미국) 흥천성령교회 (변병환 목사) 010-2295-8909 KPA 세계성경교회 (대표회장 Rev issagall)
- 31(주) 저녁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목회서신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청지기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어떤 분이 일식 식당에 매니저로 일을 하다가 팬더믹으로 인해서 약 1년 반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팬더믹으로 인하여 폐쇄되었던 비즈니스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일하던 곳이 아닌 다른 일식 식당에 고용이 되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열심히 1년반을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기쁨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매니저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일식집 주인이 그분에게 크게 책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책망을 한 이유는 주인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 매니저의 일을 하지 않고 이전에 일하던 습관대로 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니저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해야 하는 매니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매니저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했는가 보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가입니다.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매니저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로 원하시는 일이 무엇 일까요?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그리스도를 위해 전적으로 드리면서 충성 봉사 하는 것일까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온전히 드러서 충성 봉사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드러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일 으뜸으로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취향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방식을 앞세워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으뜸으로 원하시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많은 시간 열심히 일을 하고도 책망을 들은 일식집 매니저처럼 주인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매니저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으뜸으로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대사명’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지극히 높은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매니저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으뜸으로 원하시는 일입니다. ‘대사명’을 두 가지로 함축하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양육하여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일 원하시는 일은 ‘전도’와 ‘양육’입니다. ‘전도’와 ‘양육’으로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라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으뜸으로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한다면 다른 것은 못해도 전도만은 해야 하고 다른 것은 못해도 양육만은 해야 하는데 거꾸로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전도만은 하지 않고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양육만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으뜸으로 명령하시는 대사명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위해서 대사명을 명령하시는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대면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흠리스분이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해 갈 때 자동차를 멈추라고 깃발을 흔든다고 자동차를 멈추겠습니까?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폴리스가 자동차를 멈추라고 신호를 주면 반드시 멈출 것입니다. 이유는 그에게는 폴리스라는 공적인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으뜸으로 명령하는 대사명을 가버리고 여기고 내 방식대로

로 사역과 신앙생활을 하는 배경에는 명령하시는 그리스도가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사명의 명령 이전에 대사명을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즉 그분의 인격에 대한 인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최고의 권세자이신 그리스도가 으뜸으로 명령하는 일을 뒷전으로 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2절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올바른 지식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과로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사명을 통하여 전도와 양육을 명령하시는 것은 그분의 으뜸가는 관심이 영혼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관심은 온통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사역은 열심히 할 수 있으나 영혼들에게는 관심이 소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언젠가 새벽 기도 가운데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은 책망을 하는 깨달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목회를 위한 목회는 너 자신 그만둬!!! 이제부터는 너 자신

신의 목회를 위한 목회는 그만하고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한 목회를 좀 해줘!!!” 그 책망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그룹 양육과 출장 양육을 번갈아 가면서 하였습니다. 그룹 양육은 자발적으로 양육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고 출장 양육은 양육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수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들의 집 혹은 비즈니스로 찾아가서 짧은 시간 양육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남길 업적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세워진 지역 교회마다 남겨져야 할 것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것이며 선교지마다 남겨져야 할 것도 역시 원주민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는 웅장하게 세워진 건물을 홍보하는 일과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홍보하는 일은 절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일 으뜸으로 원하시는 전도와 양육에 대한 간증들을 더욱 널리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모이는 자리마다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에 대하여 서로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가슴을 성령으로 뜨겁게 불태우는 은혜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아베 마지막 가는 길...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중 총격을 당해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이 12일 도쿄의 한 사찰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일반 시민의 조문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사찰 주변과 자민당 당사 곳곳을 찾아 애도를 표하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은 이날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오래된 절 조조지에서 진행됐다. 부인 아베 아키에 여사가 상주를 맡아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비롯해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아베 전 총리가 수장이었던 자민당 최대 파벌 ‘세이와카이’의 간부 등이 참석했다. 아베 전 총리와 함께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를 이끈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 은행 총재도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 외에 아베 전 총리의 정치적 ‘맹우’로 불린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정치적 라이벌로 평가됐던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도 조조지를 찾았다. 장례식장 인근에 일반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분향 시작을 1시간 앞둔 오전 8시부터 100여명의 시민이 줄을 서 대기했고, 많은 이들이 아베 전 총리의 영정 앞에 헌화하면서 그를 추모했다. 분향소 현장에는 수백 명의 경찰이 동원돼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259개 국가·지역 등에서 1700건 이상의 조의 메시지가 쇄도했다”며 “아베 전 총리가 외교에서 남긴 큰 족적을 다시금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장례식은 오후 1시쯤 시작돼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이후 아베 전 총리의 운구차는 그가 30년 정치 활동을 해 온 국회와 총리관저, 자민당 본부 등을 순회하기 위해 떠났다. 순회를 마치고 시나가와구의 화장장으로 향할 예정이다. 가족장에 앞서 전날 오후 6시부터 장례식을 앞두고 유족을 위로하며 함께 밥을 새우는 ‘쓰야’가 열리기도 했다. 쓰야에는 정·재계와 외국 인사, 일반 시민 등 2500명이 다녀갔다고 NHK가 전했다. 외국 인사 중에는 마·일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제니퍼 윌리엄스 미국 재무장관과 라이징더 대만 부총통 등이 조문했다. 전통적인 장례 절차는 끝났지만 울가울



별도의 추도식이 열릴 예정이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합동으로 주최하는 아베 전 총리 추도식은 추후 관례에 따라 기시다 총리가 장의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 내 주요 인사는 물론 외국 정부 조문단도 대거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회의장,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대통령 특사 성격의 조문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할 방침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당대표 사임

전방위 사퇴 압박을 받아 온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여당인 보수당 대표직에서 사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BBC 등은 7일(현지시간) 존슨 총리가 이날 보수당 대표직에서 사임하고 가을에 새로운 총리가 취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존슨 총리의 사퇴에 따라 보수당 지도부 경선이 올 여름 열리고 오는 10월 새 총리가 선출될 예정이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존슨 총리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이날 성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이른바 ‘파티게이트’ 이후 연이은 악재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모임을 전면 금지해 놓고 존슨 총리가 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됐다. 경찰은 존슨 총리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는데 총리가 임기 중 법률을 어겨 범칙금을 부과 받은 사상 초유의 사례였다. 존슨 총리는 당 신임 투표를 통해 간신히 재신임을 얻어냈지만 도덕성에 큰 흠결이 생겼다. 최근에는 성 비위 이력을 알면서도 측근인 크리스토퍼 퍼처 보수당 하원의원을 보수당 원내 부총무로 임명한 것으로 드러나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



오토바이 수요 급증한 일본

일본 내 이륜차 판매량이 늘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과 각종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며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이 늘어나자 지친 소비자들이 이륜차를 선택지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시간) “이미 오래전에 위축된 국내 판매량을 만회하기 위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던 일본 오토바이 제조업체들이 최근 내수시장의 수요 급증에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경차이륜차협회가 4일 발표한 ‘2022년 6월 소형 이륜 신차 판매 대수’에 따르면 배기량이 251cc 이상인 이륜차의 6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5만1035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소형 이륜 신차의 판매량은 3만8625대였다. 이중 혼다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1만5142대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6월에 7551대를 판매했던 가와사키는 1만2792대를 기록하며 69% 증가한 판매량을 보였다. 일본에서 이륜차는 출퇴근용으로 널리 쓰이던 교통수단이었지만 1980년대 정점을 찍은 이후 인구 고령화와 불법주차 단속, 전기자전거 대중화 등으로 판매량은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혼다와 야마하, 가와사키 등 일본 주요 이륜차 회사들은 내수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는 가정 하에 운영을 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추세가 역전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 내 이륜차 수요가 늘어난 이유가 코로나19를 겪으며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소비자들이 더 많은 돈을 저축하게 됨과 동시에 야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속적인 부품 조달 부족으로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이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겹치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륜차 구매로 눈을 돌리게 했다는 것이다. 일본 혼다 모터사이클 영업 책임자인 이마미 히데아키는 블룸버그통신에 “이런 상황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이륜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외식을 줄이고 여행도 가지 못하게 되면서 충분한 자금을 모아 놓은 상태”라며 “이륜차를 혼잡한 대중교통을 피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견고한 수요가 계속된다면 올해 내수 판매량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10만대를 넘을 수도 있다”며 “현재 엄청난 주문량에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가 확인돼 방역 조치가 강화됐다. BA.5 변이가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다.



산시성 시안시는 지난 2일부터 나올 동안 29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자 1주일 동안 식당과 술집 등의 운영을 중단했다. 또 1316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벌였다. 시안 사례는 중국 본토에서 BA.5.2 변이에 감염된 첫 사례다. 베이징에서도 최근 3명이 BA.5.2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7일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하는 BA.5 변이는 기존 변이에 비해 확산 속도가 빠르다”며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기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도 항체 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BA.5 변이에 대처하려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시안의 7일 봉쇄가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시는 오는 11일부터 공공장소에 들어가기 전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베이징시의 이같은 방침이 공개되자 교민들 사이에선 외국산 백신을 맞고 중국에 입국한 경우 접종 기록이 인정되는지, 접종 완료 기준이 2차인지 부스터샷인지 등에 대한 문의가 빚뒀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베이징시 당국에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유럽 관광지에서도 BA.5 변이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스페인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보다 60% 늘었다. 이중 80%는 BA.5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에서도 지난 주말 신규 확진자가 전주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독일에서도 BA.5 변이가 확산하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 500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독일 보건당국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치”라고 우려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방역 조치를 해제하면서 확진 사실을 신고할 의무를 없애 실제 감염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지난 5일(현지시간) 면역 회피 가능성이 큰 BA.5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1월 80만명까지 치솟았다가 3월 3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5월부터 다시 10만명 수준으로 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BA.5와 BA.4가 확산하며 최근 2주간 코로나19 감염자가 전세계적으로 30%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 때와 같은 재앙과 혼란을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4. 개혁주의는 인간의 지적 타락성 (noetic influence of sin)을 인정한다.

사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생각(사상) 속에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되는 생각과 판단을 갖도록 한다. 에덴동산에서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며, 나아가서 그것을 먹으면, "인간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생각과 이론 체계를 갖도록한다.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지적영역에 까지 더럽혀 그 결과 인간은 비진리를 진리라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빼놓으신 우리의 사고체계들과, 우리의 성향 혹은 경향 (tendency)을 바르게 회복시켜준다.

고후 10:4-5,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성령께서 우리의 타락되고 잘못된 전제들, 사상들,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신다.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신학의 정의는 말씀(Text)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상황속 (Context)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주시는 사역이다. 그리고 설교는 말씀과 상황을 연결 시켜주는 다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신학과 설교는 깊은 관계가 있다. 신학은 궁극적으로 설교로 나타나야하고, 설교는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여,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속에 적용시켜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 곧 설교이다.

III. 조직신학이란?

존 프레임 (John Frame) 교수에 의하면 조직신학은 "주어진 주제에 관하여 성경 전체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조직신학이다."

"Systematic theology is any study that answers the question, 'What does the whole Bible teach us today?' about any given topic."

실제적으로 모든 크리스천들은 매일 생활 속에서 조직신학을 하고 있다. 예를들면 친구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말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요약해서 전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이 곧 조직신학을 하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왜 조직신학을 공부

해야 하는가?

1)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사명이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복음 진리를 성경으로부터 요약해서 전해야 한다. 이 작업이 곧 조직신학이다.

2) 잘못된 생각들로부터 벗어나는 수 있다. 사비비 종파나 이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준다.

3)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더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이 시대에 등장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동성애와 성전

혹은 외적 인식의 원리라고 한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특별계시라 칭한다). 그리고 피조물 (자연), 역사,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일반계시라고 한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우리는 일반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일반계시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 해석되어야 일반계시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

A. 성경의 권위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2)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한 (Transgender) 문제, 그리고 성 (Gender) 자체를 없애는 문제"이다. 이러한 이 시대의 문제들을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은 무엇인지를 알기위해

한국장로교회에 12 신조가 있다. 이것은 선교사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간단하게 12개 항목으로 요약하여 한국 장로교인들에게 가르쳤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 저자들의 신앙고백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단순히 신앙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인간의 언어로 전달 될 수 없다" 주장한다.

또한 언어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반대하는 자들은 실존주의 신학 (신정통주의)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는 결코 명제적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만남의 사건속에서 언제나 개인적이다."

(Revelation is never propositional, but always only personal in terms of Christ event). 이들에 의하면, 성경은 오류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에 관한 증언의 기록이며, 성경께서는 성경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는 문자 혹은 글로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며, 비언어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대 언어철학자들도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더우기 초월적인 실체들을 문자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언어철학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도 하나님의 계시는 문자로 전달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어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는 언어이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는 언어로 소통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주셨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자화된 진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시기 위해 창조하셨고, 우

"조직신학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설 수 있고 이 시대의 문제 앞에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게 되므로 성도의 신앙 성숙에 도움을 준다"

서는 조직신학이 필요하다.

4) 성도들의 신앙 성숙함에 도움이 된다.

IV.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신학공부를 하면 반드시 세 가지 원리 (principium)를 공부해야한다. 1) 존재의 원리; 2) 내적 인식의 원리; 3) 외적 인식의 원리. 존재의 원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만물의 존재는 불가능하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학문의 첫째 원리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첫번째로 하나님은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수용할 능력이 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시면 그 진리를 받아 드릴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시때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며,

믿고 신앙 고백하도록 했다. 12 신조 가운데 처음 나오는 것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正確無誤)한 유일한 법칙이다."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are the Word of God, the only infallible rule of faith and practice).

이 고백속에서는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2) 성경은 정확 무오하다. 3)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해 유일한 법칙이다. 성경에 대해 이 3 가지를 믿고 고백한다.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신앙고백을 해야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영감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감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한다.

일반적으로 영감의 방법에 대한 이론들은 아래와 같다.

자기들의 상황속에서 자기들의 언어로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와는 맞지 아니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주장한다.

3) 유기적 영감 (organic inspiration):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을 감동시켜 저자들 각자의 성격, 재능, 은사, 교양, 문체 등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여 성경을 조화있게 기록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성령께서 성경저자들을 감동시켜 저자들을 죄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에 전혀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개혁주의 입장은 성경의 유기적 영감 설이다.

그리고 성경의 영감의 범위에 대해서 사상 영감론 (thought inspiration)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계시의 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글자가 담고 있는 사상이 중요하다고 한다. 오히려 글자에 집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다. 이들의 주장은 "인간의 언어는 항상 오류가 있기 때문에 언어에 집착하는 것은 잘못이다.

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인간이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며 친교하도록 만드셨다.

특히 개혁주의는 사상과 언어를 분리 시킬 수 없음을 주장한다.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 할 수 있는 충분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언어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나이기 때문이다. 개혁주의에 의하면 언어 하나 하나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언어들이 모여 문장을 만들며, 문장이 모여 사상을 형성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의 축자 영감 (verbal inspiration)을 믿는다. 성경의 언어 하나 하나가 매우 중요하며 문자 하나 하나 모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기록되어졌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KHL0206@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Heade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Main title: 기타지역 교회. Grid of church listings with photos of pastors and contact info. Churches include: 갈보라장로교회, 다민족 교회, 몽고메리교회,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벨렐교회, 보스턴장로교회, 새생명인교회, 안디옥교회, 일신사제자들교회, 앵거리지열린문교회, 영생장로교회, 킬린은누리교회,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3 locations).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62)



존 오웬(John Owen, 1616-1683)의

6장 죄를 죽이기 위한 3가지 지침

“사랑하는 자들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벧전 2:11)

지침 1. 타락한 죄의 습관을 무력화시켜라

정욕은 계속적으로 마음속에서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타락한 습성 또는 습관이다. 또한 성경은 진정으로 죄의 생각을 죽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한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창 6:5). 사람은 항상 죄

해 할 일은 먼저 이러한 죄의 습관을 약화시켜야 한다. 특정 정욕이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그 결과 정욕의 물줄기는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하고 그가 이전에 가졌던 지식들은 그의 의지에 아무런 쓸모도 없게 된다. 대신 타락한 감정과 열정들이 죄로 인해 고삐가 풀린 채 나타난다. 특별히 정욕은 유혹을 통해 힘을 얻는다. 어떤 정욕이 다른 정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폭력적인 경우가 있다. 바울은 음행을 다른 죄들과 구별하여 따로 명시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 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고전 6:18).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죄 죽임에 관하여, On Mortification of Sin” (8)

면 일시적으로 물리칠 수는 있지만 곧 지치고 만다. 죄의 원리를 뿌리째 무관심하면 죄를 죽이는 그들의 노력에는 별로 진보가 없다.

지침 2. 죄의 힘을 억제하라 -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항상 죄의 힘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1) 먼저 사람은 자신이 싸워야 하는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적을 주목하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적을 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 싸움은 격렬하며 위험한 투쟁이다. 이것은 영원과 관련된 싸움이다. 사람이 자신의 정욕을 일단 심

라고 말했다. 실로 가장 실제적 영적 지혜는 마음속에 거하는 죄의 계획과 미묘함과 그 깊이를 알아내는 것이다. 즉, 죄의 가장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이 상황과 기회들을 어떻게 이용해 유혹하는지, 그것의 논리와 핑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전략은 무엇인지를 간파하는 것이다. 또한 성령의 지혜를 통해 옛사람의 계교를 물리치고, 간교한 뱀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추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입전제세의 준비를 잃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성공 열쇠이다.

3)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향해 필살의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들로 자신을 무장해야 한다. 이것이 죄와의 싸

교만을 겸손의 마음으로 물리치라! 흥분을 인내의 참음으로 극복하라!
불결함을 청결한 마음과 양심으로 누그러뜨려라! 죄와 싸워 승리하라!

를 짓고자 하는 강한 성향에 사로잡혀 있다. 사람 속에는 다양한 정욕이 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죄를 짓는다. 결국 그 모든 것은 자아 만족을 지향한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정욕과 영적인 병은 강력하고 뿌리 깊은 습관으로서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움직여 실제적으로 죄를 짓도록 만든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악을 품고 있으며, 그들의 정신은 악을 향해 기울어져 있고 육체에게 자양분을 제공한다(롬 3:4). 타락한 죄의 습관은 다른 천성적인 습관이나 도덕적인 습관과는 다르다. 천성적인 습관은 영혼으로 하여금 부드럽게 자신의 원하는 바를 행하도록 유도하는 반면, 죄의 습관은 폭력과 충동을 통해 영혼에게 강요한다는 데서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벧전 2:11).

2) 죄를 죽이기 위해 먼저 할 일은 이런 습관을 약화시키고 죄의 습관이 전처럼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소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다. 성경은 이런 행위를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갈 5:24)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죄에게 힘을 공급하는 피와 정신을 차단하는 행동이며,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죽을 몸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이다(고후 4:16). 사람이 죄를 죽이려고 할 때 죄는 더욱 폭력을 휘두르며 발광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울부짖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죄를 계속 죽이게 되면 죄의 피와 정신은 소진되고 무기력하게 된다. 울부짖어도 거의 들리지 않게 된다. 계속해서 그 죄를 제지한다면 그것은 곧 소멸하게 된다. 이러한 죄들을 사람이 십자가에 효과적으로 못 박지 않는다

각하게 생각한다는 자체는 정욕을 죽이기 위해 발걸음을 내딛는 행위이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는 행위(왕상 8:38)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같은 행위가 없다면 결코 죄를 죽일 수 없다. 하지만 두렵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적을 잘 알지 못한다. 그 결과 쉽게 자신들을 함리화하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위험을 모른 채 타인의 충고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대하 16:10).

2) 죄와 싸우기 위해 먼저 죄가 취하는 방법과 계획을 알고, 죄에게 유리한 상황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죄이며, 죄는 항상 그런 방식으로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승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지 않는다면 죄는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다윗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시 51:3)

움에서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무장한 사람은 죄가 잠잠할 때에도 죄가 죽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죄에 대해 새로운 일격을 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예였다(골 3:5). 만약 당신의 영혼이 이와 같은 자제로 죄와 싸우고 있다면 확실한 당신은 이 싸움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셈이다. 그래서 결국 죄는 공격을 받고 죽어가게 될 것이다.

지침 3. 죄의 정욕과 싸워 승리하라

정욕과 빈번히 싸워 승리하는 모습은 죄를 죽이는 삶의 증거이다. 승리는 도망가는 죄를 추적해서 완전히 쳐부순다는 뜻을 가진다. 예를 들어 죄가 활동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육체의 정욕을 채우도록
(12면으로 계속)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잘 살고 계십니까?

참 예쁜 사람이 떠났다. 이 땅에서는 더는 볼 수 없는 천국으로. 그녀는 보이는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도 참 이쁘고 따뜻하며 학력도 출중하고 결혼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업군의 사람과 했으나 몇 주 전, 사십 이세의 나이로 남편과 어린 자녀 둘을 남기고 쓸쓸히 떠났다. 딸의 비보를 접한 어머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을까?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남편의 마음은 또 얼마나 비통했을까? 아직도 엄마 부재의 현실이 믿기지 않은 어린 자녀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겨웠을까?

성경에는 인생을 ‘나그네’, ‘입김’, ‘안개’로 묘사한다.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 반드시 생을 마감하는 날이 있다. 그 날씨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인생을 있게 하신 창조주만 아신다. 장례식을 다녀오면 항상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잘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모든 가전제품은 제조자가 있고 그에 의해 제품 설명서가 기록된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도 만든 이가 있고 그에 의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 설명서가 기록돼 있다. 인생 설명서는 성경이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며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삶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준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 일반적으로 잘 산다는 개념은 돈과 연관 지어 생각하기 마련이다. 돈이 많으면 잘 사는 인생이고 돈이 많지 않으면 못 사는 인생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인생 설명서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시편 1편(쉬운 성경)은 행복한 사람과 나쁜 사람, 두 가지 삶의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로 이런 사람의 결국은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형통함이라고 말한다(시편 1:3). 하지만 나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로 삶의 결국은 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시편 1:6).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도 돈이 많은 자를 떠올리며 망치지 않고 잘살고 있다고 의아해할 수 있다. 인생 설명서인 성경은 모든 인생의 결국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된다고 말한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을까? 더 많은 부만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을 잘 사는 인생이라 단언할 수 있을까?

모든 인생의 결국은 영생이다. 인생 설명서는 한 번 죽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쉬운성경, 히브리서 9:27). 어떤 영생을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머무지 말았으면 좋겠다. 유한한 인생, 언제 삶이 다할 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태로운 인생길이니 말이다.

yanghur@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p> <p>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현대대학원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521-03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7: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gocusa@ehoo.com / www.lbgoc.com Tel: (323)913-4498,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남가주든든교회</p>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40(월-금)</p> <p>Tel: (213)481-2777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학교: 오전 11:20 영아원 예배: 오후 1:20 영어권 (중·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p> <p>Tel: (310)719-2244, www.dkc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디아스포라선교회</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p> <p>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권영자, Tel: (213)210-688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미주양곡교회</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323)737-3009, Cel: (213)215-8523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영아)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세백기도회(화-토): 오전 6:00</p> <p>Tel: (323)881-2202, www.mpcda.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626)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베델한인교회</p> <p>담임목사: 김한오</p> <p>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원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수-일)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bible@bhc.org / www.b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소망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225-78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t-Rang Church)</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6:30 수요주일예배: 오후 6:30</p> <p>Tel: (310)749-4756 실비치 리저널 클럽하우스 3 Lobby(주말 Church 3 room 1차)</p>
<p>열매교회</p>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백기도회: 오전 6:00(화-토)</p> <p>Tel: (323)737-3009, Ce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엘피스타역원</p> <p>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합동목사) 상담사목: (월-금) 오전 9:45(본당) 사목대상: 1. 영성상담 2. 영성평신도 여성센터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 사역</p> <p>www.elpistaminy.org Tel: (213)700-98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침례: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국제세계기도회: 365일 24시간 온오프</p> <p>Tel: (714)446-6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행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5</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세백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i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코너스톤교회</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rstonenyc.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찬양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예배: 오후 8:00(본당) 세백기도회: (월-토) 오전 5:30(본당)</p> <p>Tel: 310-370-5500, www.lorancecg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하늘소망교회</p> <p>담임목사: 김덕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세백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수요요일: “아성경이 읽어주세요” 오전 9:30 오후 7:00</p> <p>Tel: (213)500-2948, doc.kim@hbci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소유냐 존재냐

가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을 심방하기 위해서 개인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문안 인사를 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책상 위에 있는 책 한 권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있습니. 대신 성도님이 말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적 대화를 하고 나서 이 성도님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리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서 도리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세상의 학문과 철학으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책은 여전히 한 개인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향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감,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을 따라 살아가는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yosupbois@hotmail.com

쫓겨지는 미 감리교... 꼬여가는 한인교회

동성애·낙태 이전 탕 교단 쫓겨 불똥 교단 분리안 난항... 재정 문제 걸림돌

망각 비싼 한인교회 분리 부담 눈덩이 보수계열 미국 장로교 "NAE 탈퇴할 것" 미국 기독교계가 갈라지고 있다. LGBTQ로 통칭하는 동성애 이수와 더불어 총기규제와 낙태, 인종차별 등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 간 신학적 입장을 좁히지 못한 차별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회가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재정 문제가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2020년 합의된 UMC의 '교단 분리안'에 따르면 교단을 떠나는 교회의 새로운 교단 창립 지원을 위해 2700만 달러(약 348억원) 규모의 재정을 확보하기로 했다.



UMC 한교총 2022년 연차총회

때문에 개교회 입장에서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 규계한 KUMC 선교총무는 최근 국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인교회 가운데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 교회나 중소형 교회는 교단 탈퇴를 고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탈퇴 배경으로 제시했다. 동성애와 이민 등 주요 이슈를 두고 NAE가 진보적 입장에 기울어져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미국 최대 장로교단인 '미국 장로교'(PCUSA)는 1860년대 초 노예제도 문제를 두고 찬성하는 남부 '장로교회'(PCUSA)와 반대하는 북부 '장로교회'(UPCUSA)로 갈라졌다.

UMC 한인 공동체, '미래를 향한 거룩한 대화' 열려

한인 타인종 목회자가 연합감리교회의 희망

연합감리교회 한인목회강화협의회(Korean Ministry Plan, 회장 정희수 감독)가 주최한 '미래를 향한 거룩한 대화(Holy Conferencing on What's Next?)'가 지난 6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총 4시간에 걸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줌으로 진행되었다.

의 담임인 조선형 목사가 강사로 섬겼다. 김경호 목사는 '다메섹에서 안디옥으로'라는 주제 발표에서, "연합감리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고 나누는 목회자와 교인들은 점점 보기 힘들어지고, 거룩한 대화를 나누기보다 자기주장만 하고 있다"고 말하며, 제대로 된 연합감리교인이 되지 못한 모습을 반성했다.

(10면으로 계속)

한국예비역기독교군인회 애국강연회

기독교와 자유대한민국의 호국활동

남주주 한국예비역기독교군인회(회장 김현석 박사)는 지난 7월9일 오전11시 한인타운에 소재한 말씀세로교회(담임 김희창목사)에서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애국강연회를 실시했다.

시민단체 상임대표인 송중경목사가 기독교와 자유대한민국의 호국활동을 '기독교 애국자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애국활동-자유 대한민국 건국, 공산당 극복, 한미상호보호조약 한미동맹 강화' 등을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강조했다.



한국예비역기독교군인회 애국강연회 참석자들

Holy Conferencing on 'What's Next?' UMC 한인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영적 대화. Includes speaker photos and topics.

Table of church listings with columns for church name, pastor, and service times. Includes churches like 동부(NY,NJ)교회, 뉴욕셋세마네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etc.

동부교계 게시판

목회자 초청 가정사역세미나

패밀리터치에서는 목회자 초청 가정사역세미나를 7월 19일(화)에 패밀리터치(Little Ferry, NJ)에서 가질 예정이다. 코비드 이후 성도들의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삶을 풍성하게 가꾸는 교육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사: 정정숙 박사 일시: 2022년 7월 19일(화) 10:30 am - 1:30 pm
▲ 문의: 201-242-4422, info@familytouchusa.org

뉴욕성실장로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위임식

뉴욕성실장로교회(KAPC)는 이길호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 및 차석의 목사의 담임목사 위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일시: 2022년 7월 31일(주일) 오후 6시
장소: 203-05 32nd ave, Bayside, NY 11361
▲ 문의: 718-309-3376, 646-641-2247

복음뉴스 창간 5주년 및 종이신문 발간 1주년 감사예배

발빠르게 교계소식을 전해왔던 복음뉴스(김동욱 목사)가 창간 5주년 및 종이신문 발간 1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복음뉴스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을 초청하여 감사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2020년 7월 24일(주일) 오후 5시 30분 장소: 뉴욕만나교회(정관호 목사)
▲ 문의: 김요셉 목사 516-780-4525

박종호 장로 초청 찬양 및 간증 집회

코로나로 지친 이민자들을 간증과 찬양으로 위로하기 위한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 초청 찬양 간증집회를 7월13일부터 17일 까지 다음 장소와 시간에 가질 예정이다.
뉴욕예일장로교회(김중훈 목사): 7월 13일 (수) 8:30 PM
뉴욕영락교회(최호섭 목사): 7월 15일 (금) 8:30 PM
뉴욕신일교회(박병준 목사): 7월 17일 (주일) 11:30 AM

2022년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

2022년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가 7월 28일(목)부터 31일(주일)까지 4일간 임현수 목사(북한선교사)와 최혁 목사(LA주안예교회)를 강사로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린다. 할렐루야 어린이 집회(임지윤 목사)도 함께 진행 된다. 7월 28일(목)-31일(주일) 7:30 PM 장소: 프라미스교회(허연행 목사)
▲ 문의: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718-279-1414

제9차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

“예수, 온 인류의 소망” 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4일간 열려

제9차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지난 7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예수, 온 인류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와싱턴중앙장로교회(유응렬 목사)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한인세계선교대회는 1988년부터 시작되어 4년마다 개최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2년을 쉬고, 6년 만에 마침내 열리게 되었기에 그 의미가 남다른 대회가 됐다.

첫째 날 11일 오후 등록 후



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열린 제9차 KWMC 한인세계선교대회 새벽예배

개회예배로 시작되어, 조영중 선교사(KWMC 사무총장)와 백신종 목사(벨렐교회)의 주제 발표, 4년의 주제 강의(Plenary),

총 12개의 영역별 모임(Track)-디아스포라, 도시선교, 문화예술과 미디어, 교육, NGO와 국제

기구, Business As Mission, 선교동원, 선교적 교회, 전방계척 사역, 선교적 공동체 성경 읽기, 선교협력, MK와 스페셜 세션으로 모임을 가져 단순 강의를 통한 정보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참여자들의 소통과 그룹 발표를 통해 MK를 비롯한 다음 세대 지도자들, 선교사 및 각 분야별 전문 사역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실질적인 사역 확장의 장을 열었다. 매일 저녁 집회를 통하여 예배와 함께 현지 선교사들의 간증과 사역 소식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14일(목)에 마지막 폐회예배를 통하여 모든 일정을 완료하고, 4년 후에 다시 열릴 대회를 기약하며 모든 한인 세계선교대회의 일정을 마쳤다. (김재상 기자)



뉴욕센트럴교회 독립기념일 패스티발이 열리고 있다

뉴욕센트럴교회 독립기념일 패스티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것이 진정한 독립이며 진정한 자유!

뉴욕센트럴교회(김재열 목사)는 제2회 독립기념일 패스티발을 7월 3일 주일 저녁6시부터 9시까지 교회 야외 필드에서 가졌다. 이번 패스티발은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여 수준 높은 음악회, 무료 음식, 어린이들을 위한 게임, 그리고 마지막을 축하 불꽃놀이로 장식했다. 행사가 열린 넓은 잔디밭에서는 아이스커피와 음료수는 물론 햄버거와 핫도그, 그리고 갈비 컵 밥 등이 무료로 제공됐다. 또 부모의 손을 잡고 방문한 아이들을 위한 각종 놀이 시설과 페인팅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 8시에는 축제 참가자들이 야외 잔디밭 언덕에서 음악회를 가졌고, 음악회에 앞서 어린이들의 노래와 율동의 시간을 가졌다. 미국 국가의 제창과 함께 뉴욕센트럴교회 팜 오케스트라와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주하는 한 여름 밤의 음악회를 진행했다.

김재열 목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청교도들이 시작한 나라이다. 1620년에 뉴잉글랜드에 도착한 청교도들의 비전은 ‘언덕위의 도시’였다. 그것은 천국을 비유하는 이야기로,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비전”이라고 소개했다.

김 목사는 “5년 전에 이곳에 비전랜드를 만들고 이사를 왔다. 이 지역에 ‘언덕위의 도시’를 만들었으면 하는 기도제목이 있지만, 아직은 한인 인종그룹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성장해 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지역을 시티 오브 힐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은 온 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라. 이 비전이 미국을 향해 출발했던 청교도들의 기도제목이었다. 인생은 즐겁지만 짧은 것이다.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을 간다.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면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독립이고 진정한 자유”라고 힘차게 강조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2022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제2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촬영하고 있다

2022 할렐루야 제2차 준비기도회

“북한선교와 팬데믹 후 하나님의 항해법”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희복목사)는 7월1일(금) 베데스다교회(담임 김원기 목사)에서 ‘2022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제2차 준비기도회’를 열었다.

허윤준 목사(협력위원장)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권게터 목사(행사진행분과) 기도과 이보춘 장로(장로연합회 증경회장) 성경봉독, 최창섭 목사(교협 증경회장/재산관리위원회) 설교, 정순원 목사(교협 증경회장) 축도로 진행됐다.

최목사는 ‘이런 부흥을 주소서’(역대하 7장 14절)의 제목으로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귀한 일이다. 이번 할렐루야 대회를 통해서 불신 영혼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란다. 또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여 뉴욕의 모든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설교 후 합심 기도 시간을 통해 김경렬 목사(준비위원), 정권식

장로(장로연합회 증경회장), 안경순 목사(재정후원분과), 박황우 목사(교협부회)가 각각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

이어 김희복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2부 회의는 김희숙 목사(안내분과위원장) 개회기도와 이기웅 목사(준비위원장)의 2022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보고가 있었고 임영건 목사(총무)의 광고와 임영의 목사의 폐회기도로 순서를 마쳤다.

2022년 할렐루야 뉴욕복음화 대회는 ‘북한선교와 팬데믹 후 하나님의 항해법’이라는 주제로 7월28일(목)부터 31일(주일)까지 오후 5시에 임현수 목사(북한선교사)와 최혁 목사(LA주안예교회)를 강사로 프라미스교회에서 개최한다. 이어 최혁 목사는 8월 1일(월) 오전 10시에 목회자 및 평신도지도자 세미나를 인도한다. 또한 대회가 열리는 같은 기간에 3년 만에 열리는 할렐루야 어린이 집회가 임지윤 목사(어린이집 개척교회 2세)를 강사로 개최된다.

교협 김희복 회장은 “북한선교에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북한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불신자에게 전도하기에 좋은 기회”라며 “이번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를 통해 480여개의 교회가 예수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회를 통해 들어오는 후원금은 북한선교 후원, 장학금 후원, 홈리스 및 선교회 후원, 어렵고 힘든 교회를 후원하기 위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홍현숙 기자)

총성된 종으로 끝까지 충성하겠다”며 답사를 했다.

축하 및 권면 순서에서 미주성결교회 총회장 이대우 목사, 뉴욕교협 회장 김희복 목사, 스태튼아일랜드 교협 전회장 이종범 목사, 미주성결신학대학교 총장 황하균 목사, 미주성결교회 전 총회장 이의철 목사가 축사를 전했으며, 뉴욕교회 장석진 원로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김재상 기자)



임직식에서 임직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뉴욕성결교회, 설립 46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

장로 3명, 권사 6명, 안수집사 1명, 재직분 반야

뉴욕성결교회(담임 이기웅 목사)가 6월26일(주일) 설립 46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을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새 일꾼을 세웠다.

이기웅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임직식은 중앙지방회 장로 부회장 박광훈 장로의 기도와 지방회장 김동권 목사의 설교에 이어 장로 장립과 권사 취임, 집사 안수의 순서로 진행됐다.

지방회장 김동권 목사는 창세기 39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의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임직자가 되기를 축복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총리라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오늘 임직자에게 장로로서의 세마포 옷, 권사로서의 세마포 옷, 안수집사로서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다.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사역을 감당하는 임직자들이 되기를 축복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직식을 통해 △장로 강귀석, 전한수, 이상호 △권사 최재숙, 신인숙, 이미야, 김성희, 조혜숙, 이기영 △안수집사 이정호 등 10명의 새로운 일꾼을 세웠다.

이날 임직자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직분이 거룩한 소명임을 알고 경건의 모범이 되며, 교역자의 사역을 돕고 교회와 성도 돌봄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서약했다. 또한 임직자 대표로 강귀석 신임장로는 “착하고



퀸즈장로교회 전교인 여름 수련회 단체 사진

퀸즈장로교회 전교인 여름 수련회

전교인 함께 모여... “다시 시작이다”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는 지난 7월3일(주일)부터 7월 4일(월)까지 퀸즈장로교회에서 이은상 목사(세미한교회)를 강사로 초청하여 “다시 시작이다”라는 주제아래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가졌다. 주일 오전부터 시작된 수련회는 어린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들이 다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

강사 이은상 목사는 “코로나 이후로 다시 한 번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선포하고 이은상 목사가 직접 작곡한 “다시 시작이다”라는 찬양을 다 함께 불렀다. 수련회 첫날 일정은 주일 오전 8시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3번의 예배를 통해 이은상 목사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으며, 리더쉽 특강 시간에 ‘리더쉽과 팔로워쉽’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오후에는 퀸즈여름축제로 선교회별 및 가족 장기자랑과 함께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는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첫날 모든 일정 후에는 야외 식당을 마련하여 전교인이 함께 하는 바베큐 저녁 시간을 통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역시, 오전 예배를 시작으로, 선교회별 모임과 영화 관람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 폐회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쳤다. (김재상 기자)

UMC 한인 공동체, ‘미래를 향한 거룩한 대화’ 열려

(9면에서 계속)

하나님께서서는 한인 목사들을 연합감리교회의 부흥을 위해 쓰실 것”이라고 말하고 한인 타인종 목회자가 연합감리교회의 희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이 푸르메 선교사는 2세대 입장에서 한국교회를 진단했다. 이 선교사는 “20년 전부터 차세대 대를 위한 목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대부분의 2-3세 한인 목사들은 미국인 회중을 섬기고 있으며, 평신도 2세대도 한인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는 차별과 인종차별”에 있다고 말하며, 의식의 전환과 열린 자세를 촉구했다. 첫날 마지막 순서는 조선형 목사의 “갈바를 모르는 믿음으로”라는 주제의 발표로 마무리됐다. 이튿날인 6월 28일에는 1세대 한인 이민

교회인 와싱턴사공의교회의 담임 김영봉 목사와 1.5세대 목회자인 심시정 목사 그리고 타인종 목회자인 이성호 목사가 강의 맡았고, 첫날에 이어 조선형 목사가 계속해서 진행을 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이성호 목사는 성서와 역사 속에 나타난 분열과 통합의 역사를 통해, 현 상황을 재해석했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 각자 소감을 표하는 자리에서, 평신도인 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는 차별과 인종차별”에 있다고 말하며, 의식의 전환과 열린 자세를 촉구했다. 첫날 마지막 순서는 조선형 목사의 “갈바를 모르는 믿음으로”라는 주제의 발표로 마무리됐다. 이튿날인 6월 28일에는 1세대 한인 이민 (기사제공: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총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7월 정기 조찬기도회가 에반겔리아대학교에서 열렸다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7월 정기 조찬기도회

“신앙의 뇌관은 기도, 기도의 뇌관이 회복되어야”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는 2일(토) 에반겔리아대학교 체플실에서 7월 정기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신용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도회에서 박재만 목사(미라클 포인트교회 담임, OC교협 부회장)는 “기도의 세 가지 레벨”(마 7:7-8)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박재만 목사는 “구하라 블레싱을, 찾으라 블레서를, 두드리라 천국의 문을”이라며 “신앙의 뇌관은 기도”라고 강조하고 “다시 한 번 기도의 뇌관이 회복되어 강력한 복음의 폭발이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를 통해 OC와 남가주와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고 설교했다. 연합회는 이어진 합심기도에서 우리의 조국인 한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그리고 전쟁의 아픔과 참상 속에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고, OC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이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복음을 위해 낯선 땅에서 하

나눔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했다. 특별히 연합회의 하반기 계획과 회원 및 이사, 자문위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 기도회는 엄재선 이사의 대표기도, 박재만 목사의 설교, 윤우경 이사장의 마무리 합심기도 후 박재만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신용 회장은 하반기 교계 연합행사를 소개하고, OC교계는 어느 지역 기독교 단체보다 연합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하고, 하반기 행사도 연합회 단독의 행사가 아니라 교계가 연합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연합회는 매월 첫 토요일 오전 8시에 에너하임에 위치한 에반겔리아대학교 2층 체플실에서 조찬기도회를 갖고 있으며 조찬기도회 설교는 연합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연합회 홈페이지: www.ockca.org 이메일: info@ockca.org 유튜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기사제공: OC전도회연합회)

제15회 올네이션스 연합 기도 컨퍼런스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며 협력하자”

글로벌 국제선교교회연합(GIM, 대표 정윤명 목사)이 주최한 제15회 GIM(Global International Missions) 올네이션스 연합기도 컨퍼런스가 지난 6월 26일(주일) 하와이 호놀룰루 와이아라이에 침례교회(담임 맷 샌더스 목사)에서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대회는 미국 내 주류교회들의 목회자, 교수, 신학자, 복음전도사, 선교사들이 연대하여 미국이 회복해야 할 당면과제를 비롯, 열방의 핍박받고 억압받는 국가의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발표하는 대회였다. 역대기하 7장 14절 말씀을 주제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우크라이나, 미얀마, 이란, 티베트, 네팔, 중국, 홍콩, 타이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북한, 아프리카 가나와 콩고, 중동, 이스라엘(Messianic Jews) 등 미국내외의 35개 다민족의 기도주제를 발표하며, 함께 기도하는 화상컨퍼런스였다. 대회장 정윤명 목사는 개회인사에서 이번 대회에서 “미국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미국의 회복과 함께 지구촌의 핍박받고 억압받는 민족의 교회를 위해 함께 일어나 기도하며 격려하자”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텍사스, 알래스카, 뉴멕시코, 하와이 등지의 복음적인 미국 주류교회들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진행된 순서에서는 미국의 회개와 회복 선언에 이어 한국과 북한, 중국, 홍콩을 비롯해 이스라엘, 중동지역 이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 시상상황과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회복과 정의를 위한 기도순서가 있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회복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모든 참가자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 사회자인 케빈 웰드롬 박사(University of the Southwest, NM 교수)는 한반도에 관한 발표에서 “한국은 미국 선교사들이 138년 전 처음 한반도에 도착한 이래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부흥을 이끈 나라였다. 이전 정부의 지난 5년 동안 위장된 민주주의로 한국의 교회와 자유민주주의가 공격당했다”고 전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국민들과 목사들이 탄압받고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에 관해 “기독교를 말할하려는 잔인한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이런 인권 탄압을 피해, 신앙을 지키는 소수의 지하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많은 미국의 주류교회 지도자들은 비전리와 공산세력으로부터 침공과 탄압을 받고있는 각 민족의 기독교 신앙인들의 자유와 정의를 위하여 미국내 복음적인 많은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여 돕기로 결의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GIM주최 열방을 위한 연합기도 컨퍼런스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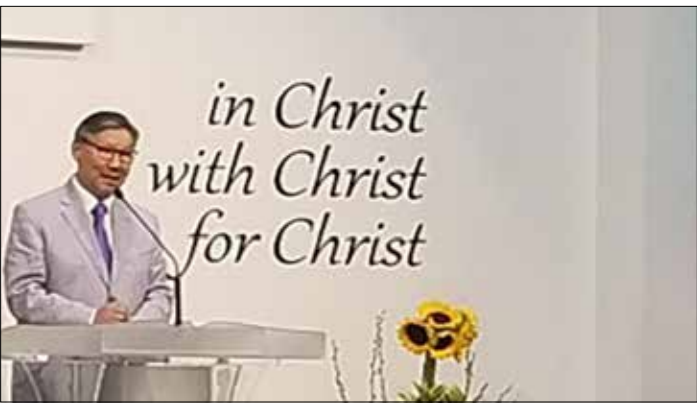
WU,국제계시록 포럼 요한계시록 포럼 개최

코로나 질병...그 어느 것보다도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공격

국제계시록 포럼(대표 최수일 교수)이 주관한 요한계시록 포럼이 5일(화)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평화교회(담임 김은목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요한계시록: Covid 사태 이후 부흥에 대한 예언’이라는 주제로 최수일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강의했다. 최수일 교수는 “코비드 사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모두들 관심이 많았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사태에 대하여서도 말세에 중대한 사건들, 특히 하나님의 징계적인 코로나 질병 같은 큰 문제에 대하여 침묵 할수 없다”며 “다만 그 계시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재림 사건같이 한 사건에만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나타내는 길이 있는가하면 역사상에 계속적으로 나타날 사건들에 대하여는 한 예언으로 통해 대표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코로나 질병은 역사상에 나타난 그 어느 것 보다도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공격이다. 그 주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최대한 많은 영혼을 멸망시킴”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지만 사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량 죽음을 통하여 두려움을 주일 예배에 모이지 못하게 하며 영성 활동과 전도 활동을 방해하여 영혼을 고사시킴”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하나님은 종말을 앞두고 계속하여 왕성한 복음 전도활동을 주도하신다”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세상 유혹을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며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여 나아가 때 큰 부흥이 일어난다. 부흥은 고난을 피하여 도망하고 세상 권세가 두려워 신앙생활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아닌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견디어 냈던 그 증인들로 인해 일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요한계시록 포럼에서 최수일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미주성결교회 총무 이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미주성결교회 총무 이취임식 가져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미주성결교회 총회본부(1500 Crenshaw Blvd, Torrance)는 지난 21일(화) 오전 11시 임직원 헌신예배를 드리고 총무 이취임식을 가졌다. 허정기 목사(부총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가운데 한상훈 장로(부총회장)가 기도를, 김현석 목사(남서부지방회장)가 성경봉독(사도행전 13:21-23)을 한 후 이상복 목사(전 총회장)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목사는 “오늘 본문에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 년간 사용하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며 내 뜻을 다 이루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쓰

는 사람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신임총무로 수고 해주실 김시은 목사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총회 총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총회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회장 이대우 목사가 이임하는 이흥근 총무에게 전별금을 전달한 후 이흥근 목사(제15, 16대 총무)가 이임 인사를 통해 “그동안 많은 총회 목사님들의 사랑으로 총무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신임총무로 선출된 김시은 목사(웅기장교회 담임)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총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회장 이대우 목사가 신임 총무 김시은 목사에게 취임 축하패를 수여한 후 사무국장, 선교국장, 교육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최경환 목사(전 총회장)가 축사를, 유석형 목사(전 총회장)가 격려사를 한 후 차광일 목사(전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다음은 제43회 미주성결교회 임원이다. 총회장: 이대우 목사 △부총회장: 허정기 목사, 한상훈 장로 △서기: 이정석 목사 △부서기: 노명섭 목사 △회계: 최은호 장로 △총무: 김시은 목사 △선교국장: 박재홍 목사 △교육국장: 황영송 목사 ▲문의: (213) 407-4569 총무 김시은 목사 (정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GMC 선교사 줌 합창단 찬양페스티벌

GMC(Global Missionary Choir 이사장 열재송 교수)선교사 줌 찬양단(단장 배봉연, 지휘 임보희)이 주관하고 KWMI(세계 선교사 중보기도회)가 후원하는 찬양페스티벌이 7월16일 인랜드교회(오전 6시)와 미국 감리교회 우림교회(오후 2시), 17일 나성교회(오전 11시)와 실비치 평강교회(오후 6시)에서 각각 열린다. 본 찬양단은 2021년 9월에 창단돼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초교파 선교사 줌 합창단으로 현재 11개 나라에 흩어진 24명의 선교사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찬양페스티벌에는 단원 중, 16명의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찬양을 드리게 된다. 본 합창단의 연습은 매주 수요일 Zoom을 통해 진행되며 한 달에 한 곡씩 유튜브를 통해 영상찬양을 올리고 있다. ▲문의: (909)610-5431, (949)316-9804

‘기독교문학산책’ 출판감사예배 및 북콘서트

World Share USA 대표 강태광 목사의 신간 ‘기독교문학산책’ 출판감사예배 및 북콘서트가 24일(주일) Cafe Nimo(1032 Crenshaw Bl. LA)에서 1부 출판감사예배(오후 2:40), 2부 북콘서트 및 싸인회(오후 3:30), 3부 선교기도회(5:00)로 진행된다. 미주기독교인론에 연재되어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문학칼럼 모음집인 본서에는 세계명작들을 기독교적 시선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수록했다. 이 책의 판매 수익금으로 학교(고아원) 교육 시설을 건축하여 모범적인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 강태광목사는 World Share USA를 통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구호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쟁이 끝나면 전쟁고아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의: (323)578-7933

제 36회 크리스찬문학 신인상 시상식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이사장 정지운목사, 회장 송종목 목사) 제 36회 크리스찬문학신인상 시상식이 7월30일(토)오전 10시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 ▲문의: (213)249-0771

은혜한인교회, 한여름 성령집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목사)한여름 성령집회가 ‘더 깊고 깊은 은혜’를 주제로 14일부터 17일 주일까지 진행된다. 집회 시간은 14일 오후 7:30, 15일 새벽 5:30, 오후 7:30, 16일 오전 6:66, 오후 7:30, 주일 오전 7:30, 9:20, 11:30, 오후 2:00. 황형택목사(강북제일교회 담임)가 강사로 단에 선다. ▲문의: (714)446-6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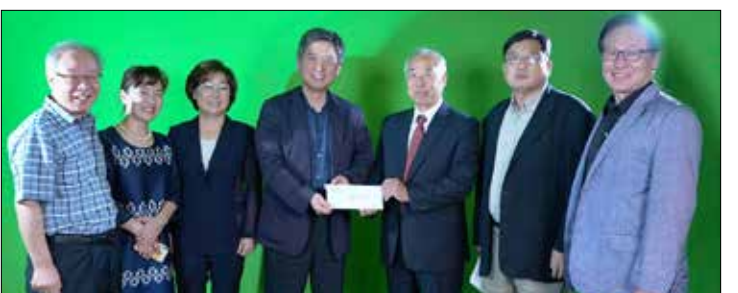
오렌지한인교회에서 열린 같이걸어가기 콘서트

‘같이 걸어가기’ 미주콘서트 성료

LA지역과 달라스 등 10여 차례 공연

CCM훈성그룹 같이 걸어가기(조찬미, 영평안, 임성규) 미주콘서트가 지난 6월24일부터 7월3일까지 남가주 일대 한인 교회에서 열렸다. 7월2일(토) 오후 5시 오렌지한인교회(담임 피세원 목사)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그룹 같이 걸어가기는 ‘요게벳의 노래, 그 곳에, 내일을 위한 기도, 눈물로 지으신 이를 예수, 인생, 교회’ 등 찬양곡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을, 성도여 다함께’ 등 찬송가를 불렀으며 ‘오 신실하신 주’를 앵콜곡으로 불렀다. 같이 걸

(박준호 기자)



미주장신대 동문회 회계 김선광, 부회계 이순애, 부회장 이미란 목사, 총장 이상명 박사, 회장 이경화, 이사장 전영훈, 장학위원장 손태환 목사.

미주장신대 동문회 모교 재학생 위해 장학금 전달

봄학기, 가을학기 각 한명씩 선발할 것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동문회 관계자들이 모교에 동문장학기금 5,000달러를 전달했다. 지난 6월 27일 모교를 방문한 동문회장 이경화 목사 등은 목회학 석사 동문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이경화 목사는 “앞으로 장학금을 증액하여 학부 과정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문회 장학위원장 손태환 목사에 따르면 이번 장학금은 교계 및 동문회의 동량이 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동문회 장학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 봄학과 가을학기에 각 한명씩 선발하여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미주장신대)

한국오픈도어, 머스카슬론 대회 연다

오는 9월 26~28일 경기도 연천 DMZ서 열려

한국오픈도어가 오는 9월 북한 지하교회와 탈북민을 위한 제2회 머스카슬론 한국대회를 경기도 연천군 고대산에서 진행한다. 이 대회엔 네덜란드오픈도어와 익스트림 스포츠로 모금하는 4M, DMZ연합회 등이 함께 한다.

한국오픈도어는 7일 온라인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회 취지와 참여 방법 등을 설명했다.

머스카슬론 대회는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산악하이킹 등 3개 종목을 소화하는 익스트림 스포츠다. 한국대회는 6km, 10km, 21km, 42km 등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주로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진행했는데 지난 2019년 OECD

국가 중에선 처음으로 한국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대회를 열었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이라크 케냐 네덜란드 탄자니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다.

한국오픈도어가 대회를 개최하는 건 북한의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다.

이번 2박3일 일정한 탈북 청소년들이 함께해 참가자들에게 북한 지하교회의 실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참가자들은 통일전망대 백마고지 등을 방문하고 휴전선이 보이는 소요산에 올라 함께 기도도 한다.

모금된 후원금은 한국오픈도어를 통해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한 성경과 생필품 보급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40여명의 유



럽 참가자도 자비량으로 한국을 찾는다. 한국 성도들도 대회에 함께 할 수 있다. 다음 달 5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으며 선착순 50명이다.

한국오픈도어 김경복 사무총장은 "이번 대회가 코로나 이후 선교적 필요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전 세계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의 기도와 도움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신대, 신학대 최초 통일교육센터 선정

‘용서와 화해’의 가치 전한다

신학대로서는 최초로 통일교육센터에 선정된 총신대(총장이재서)가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가치관에 기반을 둔 통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총신대는 7일 "10주 일정으로 열리는 서울시민통일강좌인 '한반도 정체 이해를 위한 통일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서울 시민들과 남북 관계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주관하는 통일교육센터는 전국 10개 권역에 하나씩 마련된다. 학생이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통일 교육을 실시하고, 통일 관련 단체와 연계해 통일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올해는 시민단체가 선정된 전북통일교육센터를 제외하고 단국대 대구대 한라대 등 모든 지역 대학들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총신대는 신학대로서는 유일하게 서울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됐다.

하광민 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총신대 교수)은 "총신대는 그동안 평화통일연구소를 운영하고 통일개발대학원을 신설

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일반적인 단체들이 통일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과 달리 총신대는 기독교의 기본 가치인 '화해와 용서'를 목표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 그 차별점이 이번에 통일교육센터로 선정된 이유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총신대는 통일과 평화를 위한 사역이 한국교회의 책무이자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통일강좌'를 비롯해 교회나 학교 시민단체를 직접 방문해 강의를 진행하는 '통일시민순회강좌' 등을 열 계획이다. 25개 자치구에서 진행되는 통일 교육의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과 청년들이 직접 통일 소식을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는 '통일 유과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반포한강공원에서 '통일송' 창작 경연대회를 여는 등 대규모 행사도 준비 중이다.

총신대가 서울통일교육센터를 운영하며 세운 목표는 남북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당위성



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고 동시에 차세대 통일사역자를 길러내는 것이다. 최준호 사무국장은 "통일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을 시기는 학생 때 밖에 없다. 통일된 한반도에서 살아갈 다음세대가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점차 교회에서도 통일에 관한 관심이 식어가는 게 느껴진다. 서울통일센터가 교회 사회 청년들을 아우르는 연결자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민통일강좌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남북사회통합연구원에서 처음 열렸으며 오는 9월 6일까지 진행된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이덕환 전 청와대 통일비서관, 이창열 전 주중 한국대사관 통일관 등이 강사로 나선다.

VR·AR 활용 '히즈쇼 어린이 페스티벌'

2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서울·인천·대구 교회들서 개최

기독교 어린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히즈쇼가 뮤지컬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활용해 '여름방학 히즈쇼 어린이 페스티벌'(포스터)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페스티벌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서울 대림교회, 예수마을교회, 인천 산곡교회, 대구 동신교회에서 차례로 열린다.

히즈쇼는 코로나19 기간 대면 활동이 제한됐던 어린이들을 위해 색다른 콘텐츠로 페스티벌

을 채웠다. 가족 뮤지컬인 '그의 나라를 찾아서'는 주인공 쥘니가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모험 이야기다. 히즈쇼는 현지 배우와 전문 스태프가 1년 넘게 준비해 2016년부터 서울 대전 광주 등에서 200회 이상 공연했

을 채웠다. 가족 뮤지컬인 '그의 나라를 찾아서'는 주인공 쥘니가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모험 이야기다. 히즈쇼는 현지 배우와 전문 스태프가 1년 넘게 준비해 2016년부터 서울 대전 광주 등에서 200회 이상 공연했

'살아나는 성경 박물관'은 AR과 VR을 활용한 전시회다. 전시회에선 24편의 세계적인 성화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성경 인물들을 만날 수 있다. 22곳



의 성지를 VR로 방문할 수도 있다. 페스티벌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뮤지컬과 전시회로 발생한 수익은 몽골 등 선교지 언어로 성경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보급하는 데 사용한다.

일진 노릇하며 '쓰레기'로 불렸던 아이

제주 나무와숲학교 권오희 교장

'일진' 노릇을 하며 물건을 빼앗고 오토바이를 훔쳐 타며 스트레스를 풀던 아이. 나열된 내용만 보면 가출 청소년, 소년원 등이 떠오르는 아이는, 훗날 고난 속에서도 바르게 살아가도록 학생을 양육하는 대안학교의 교장이 된다. 제주 나무와숲학교 교장 권오희(40·사진) 목사가 그 주인공이다.

최근 학교에서 만난 권 목사는 자신의 학창 시절에 대해 "인생의 꿈도 소망도 없이 학교에서 '쓰레기'라고 불렸던 아이"라고 회상했다. 보살핌과 사랑이 결핍된 자리에 불안정과 폭력이 채워졌던 가정환경은 그를 방황의 길로 내몰았다. 생모는 그가 세 살배기 때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갔고 권 목사는 그 후 3명의 새엄마를 더 맞아야 했다.

태권도 공인 5단에 특전사 출신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태권도장 관장, 이발사, 고물상 주인, 다단계 판매업자, 스님, 철학관 운영자 등 정작 대신 유목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 그러던 그에게 초등학생 시절 처음 다니게 된 교회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해줬다. 그리고 고교 2학년 때 한동대에서 열린 청소년 연합수련회에서 하나님

을 처음 만났다.

"마지막 날 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애정결핍으로 가득 찼던 제게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기쁨도 잠시, 큰 환란이 찾아왔다. 대입 수능 시험을 2개월여 남기고 있던 그가 차를 타고 학교에 가다 18t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으스러진 권 목사는 9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지만 어느 순간 고백이 바뀌었다. "어차피 내게 다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다리 잃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변할 순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산 고신대에서 선교학을 공부한 권 목사는 전도사 시절 필리핀 사역을 시작으로 포항, 부산에서의 중고등부 사역을 거쳐 제주에 동지를 뒀다. 그는 "제주에 이혼율, 우울증 지수 등이 가장 높다는 얘길 듣고 아픔 많은 아이와 공감을 나누고, 딱 한 달 얼마나 귀한지 알려주는 학교를



만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2017년 학생 5명, 교사 1명으로 시작한 '당근마켓'에 중고물품을 팔아 교사 급여를 쥐야 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권 목사는 끊임없이 기독교적 세계관과 교육철학을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했다. 그 결과 제주도 아이들을 한 마늘로 보고 그들을 위해 멋진 숲을 만들어주기로 마음먹은 지역 내 교회들이 연합해 법인을 만드는 기적을 끌어냈다. 2020년 '사회적협동조합 제주교육선교공동체 나무와 숲'이라는 기다란 이름으로 나무와숲학교가 출발했다. 지금은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통합 운영하며 학생 46명을 양육하고 있다.

권 목사는 "5년 차를 맞으면서 지역 내 일반 학생들과의 연대를 구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아이들이 더 큰 숲을 이룬다면 제주도를 더 가치 있게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세대에 정체성 찾아주자' 내달 27일 연합집회

6시간 동안 찬양·기도·간증, 만남·연합 통한 정체성 찾기 초점

"대한민국은 고도의 발전을 이룩했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아파 보였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이도 너무 많았습니다. 아픔을 세상의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죠. 청년들이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사회와 다음세대의 오늘을 진단하는 마크 조(54·YWAM 코나 열방대학 동북아시아 사역 리더) 목사의 표정엔 애통함과 단호함이 엮여있다. 그는 지난 4월, 아내인 스테이시 엄(55·YWAM 코나 열방대학 동북아시아 사역 리더) 선교사와 함께 입국해 한국교회 다음세대를 위한 연합 집회를 준비해 왔다. 다음 달 27일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린 '렛츠고 코리아(Let's go Korea·포스터)' 준비에 한창인 두 사람을 5일 서울 은평구의 한 카페에서 이주만(48·YWAM 코나 열방대학 동북아시아 사역) 선교사와 함께 만났다.

'다음세대여 일어나 함께 가

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집회를 위해 세 사람은 '렛츠고 코리아'의 공동대표와 총무(이선교사) 역할을 맡았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되는 집회는 '함께 만남'과 '연합'에 방점이 있다. 조 목사는 "모세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연합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다가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엔데믹 시대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며 이는 모이기에 힘쓰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세 사람은 2018년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교회에서도 열린 '40일 24시간 기도집회'를 이끈 주역이기도 하다. 당시 40일 동안 1000여 교회에서 연인원 2만여명이 참석하며 960시간을 오롯이 찬양과 기도로 채워 주목을 받았다. 엄 선교사는 "2018년 집회 이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지난해 8월과 11월 일본 오사카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40일

집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며 "복음을 가슴에 품은 이들의 연합이 어떻게 막힌 담을 허물고 변화를 끌어내는 지 체험했다"고 회상했다.

이 선교사는 "렛츠고 코리아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다음세대들이 잃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집회도 '40일 24시간 기도집회' 때처럼 순서자들을 사전 공개하거나 홍보하진 않는다. 6시간여 동안 찬양과 기도, 메시지들이 전하는 짧은 간증이 채워질 것이라는 게 소개의 전부다.

조 목사는 "어떤 강사, 어느 예배팀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전 세계를 향한 집회의 다음 개최지를 묻자 조 목사가 잠시 숨을 고른 뒤 담담하게 말했다. "기도 중이지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집회가 열리는 도시마다 영적 열쇠를 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의 청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집회를 개최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기독교명저로의초대

(8면에서 계속)

육신적인 생각을 부추길 때 즉시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앞으로 끌어내어 정죄한 다음 끝까지 따라가 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 이른 사람은 영육을 그 원리와 뿌리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죄의 활동과 움직임은 전보다 훨씬 수그러지게 되고, 그 사람의 신앙과 평화를 방해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의 타락한 품성을 부추기는 죄를 죽이는 일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

다.

1) 죄를 죽이는 삶의 핵심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강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죄성을 무력화시키는 데 있다. 우리는 교만을 겸손의 마음으로 물리치고, 흥분을 인내로, 불결함을 청결한 마음과 양심으로 누그러뜨려야 한다. 또한 세상에 대한 욕구를 천국에 대한 생각으로 무력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은혜의 원리들은 성령의 은혜로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 습관적 은혜이다.

2) 성령 또는 우리 속에 새 사람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인함과 활력을 가지고 죄와 대항해서 기쁘게 싸운다. 그러므로 죄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우

리에게 제공된 이러한 자원들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3) 그 두 가지 사실로 인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안에 타락한 성품은 난공불락처럼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며 보편적인 의미에서 이미 정복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죄의 저항을 어느 때보다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비록 죄가 나타날지라도 적어도 은혜의 언약으로 인해 그 죄는 우리의 양심에 있는 평화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younsuklee@hotmail.com

'기독교 문화사역'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고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세요!

순삭성경 Hisfinger Media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사역부 히즈핑거는 기독교 콘텐츠제작, 기독교 굿즈제작 등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구매문의, 광고문의, 사역문의는 info@chpress.net 혹은 718-886-4400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창 (197)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박해(迫害)를 딛고 선 위그노(Huguenot)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삼복더위에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 실상은 현대인의 불행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목회와 선교현장은 코로나 광풍으로 속대밭이 되었다.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뚜렷한 대안이 없다. 이렇게 앞이 안 보일때 우리는 역사를 돌아 볼 필요가 있다. 눈어에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可以爲師矣) 말이 있다. 즉, 옛 것을 알고 새 것을 알면 이는 스승이 되기 위한 조건일 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이다. 2천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꼭 눈여겨보아야 할 사례가 있다. 그것은 16~18세기, 프랑스에서 살았던 위그노(Huguenot)이다. 저들은 102년 동안 가톨릭교회, 귀족, 왕이 결탁된 국가권력의 박해아래 있었다. 위그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투쟁했다. 그 여파로 수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고 일부는 세계로 흩어져야 했다. 저들은 가는 곳마다 신앙뿐 아니라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페네티믹 시대인 지금 21세기 목회와 선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봉착해있다. 돌파해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치열하게 살았던 위그노의 삶과 정신

을 본받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거침이 없을 것이다.

고난과 함께 한 위그노의 역사

위그노(Huguenot)라는 말은 독일어 '아이트게노센'(Eidgenossen)에서 왔다. 이는 동맹 또는 하나의 가르침에 의해서 연결된 동지들이라는 뜻이다. 이 단어를 축약해 아이그노트(Eignot)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위그노(Huguenot)가 되었다. 위그노라는 말이 프랑스 왕국에서 공식적으로 사

바시학살(1562), 위그노전쟁(1562~1598), 성바톨로메 대학살(1572)이었다. 일종의 종교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이때에 저들의 예배 처소가 파괴되거나 불탔다. 외국으로 도피하지 못한 목사와 설교가들은 잡혀 죽거나 노예가 되어 평생 배 밑창에서 노를 저어야 했다. 많은 이들이 강제로 개종을 강요당했고 끝까지 개종을 거부할 경우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했다. 파리 에펠탑이 세워진 곳이 순교한 위그노를 묻었던 곳이

간해 있다가 죽임을 당했다. 마리 뒤랑은 1730년 7월 19살 나이에 프랑스 남부 콩스탕스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녀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저항하면서 38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다. 마리 뒤랑은 그곳에서 죄수들을 돌보며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다. 그녀는 감옥의 물을 길어 올리는 구멍 주위에 "레지스터(R?Sister)" 글을 새겼다. 그 뜻은 저항하라는 것이다. 비진리에 저항하고,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복음을 위해 저항하라는 말이다. 그녀가 돌에 새긴 레지스터는 이후 프랑스 개신교인들의 영혼에 새겨졌고 그들의 좌우명과 정체성이 되었다. 이렇게 레지스터 정신으로 무장한 신도들은 양심의 자유를 따라 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섰다.

세계로 흩어진 위그노

위그노의 망명은 1572년 8월 24일에 파리에서 발생한 성 바돌로메 대학살 사건으로 촉발했다. 더 이상 프랑스에서 개신교 신앙을 유지하며 살기 어렵게

파 사회봉사 기관을 세워줬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간 위그노는 현재 "유레이즈미엄"이라는 최상급 포도주 산업을 일으켰다. 미국으로 간 위그노는 예술가와 엔지니어 등 지성인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지도층이 되었다. ko.wikipedia.org 자료에 의하면 "시아더어 루스벨트를 포함 8명의 미국의 대통령들이 저들의 혈통을 가졌다. 이렇게 프랑스 위그노가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나라와 도시마다 산업이 발전하고 변명을 이르며 역사의 전환을 이룬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저들은 '갈뱅의 후예들로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Soli Deo Gloria)을 위해 성실하고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이다(성원용 목사 "위그노처럼" 책).

위그노의 대표적 정신

첫째는 망치와 모루의 정신이다. 이것은 고난을 상징한다. 저들은 망치와 모루 사이에 놓여서 으깨임을 당했다는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위그노가 가장 순수하고 생명력이 넘쳤

어졌고, 20세기에는 나치의 불의에 저항했던 프랑스 레지스탕스 운동으로 다시 살아났다. 셋째는 톨레랑스 정신이다. 톨레랑스(Tolerance)는 관용이라는 말이며 라틴어 'tolerare'에서 왔다. 루이 16세는 1787년 11월 7일 베르사유 칙령을 내렸다. 이것을 톨레랑스 칙령이라고도 부른다. 이 칙령의 발표로 프랑스에서는 실제적으로 관용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다인종,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필요한 사회적 가치는 톨레랑스의 정신이다.

맺음 말

역사에는 "만약(IF)"라는 말이 없다. 그것은 과거 행적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기 때문이다. 인간실존은 현재형이다. 따라서 가정을 하며 상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만약에 이런 탄압이 없었다면 프랑스는 탁월한 개신교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이는 프랑스 위그노 학자인 "사무엘 무르"가 한 말이다. 위그노는 16~18세기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지금도 프랑스 개신교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 위에 두고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정신적 유산을 잇겠다는 뜻이다. 마치 초대교회 카타콤의 성도들처럼 그들 조상이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 어떤 유혹도 거절하며 죽을 앞에서 신양적 절개를 쫓듯이 지킨 것에 자랑스러워 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한인교회와 크리스천들도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위그노의 순결, 열정, 헌신, 희생 정신이 불꽃으로 타올라야 하지 않을까? 예배당에 안에만 갇힌 신앙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도 저들처럼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

jsong007@hanmail.net

위그노는 16~18세기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일컫는다. 저들은 긴 세월동안 온갖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냈다. 교회가 위그노의 삶과 정신을 본받는다면 세상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설이 있다.

위그노를 대표한 마리뒤랑(Marie Durand)

마리뒤랑은 프랑스 위그노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녀의 가족은 개신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순교의 길을 걸었다. 광야교회 목사였던 오빠인 베에르 뒤랑은 32살 나이에 몽펠리에 광장에서 공개 처형되었다. 재판소 서기였던 아버지 에티엔 뒤랑과 어머니도 1729년에 체포되어 14년 동안

되자. 저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분도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 시작했다. 당시 프랑스 인구 1800만 명중 개신교 인구는 11%인 200만이었다. 그중에서 100만 명의 위그노가 디아스포라가 되었다. 독일로 간 위그노는 베를린에서 엘리트 계층이 되었고 제조업과 기계 산업을 육성하였다. 네덜란드 간 위그노는 무역업을 일으켰다. 영국으로 간 위그노는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었다. 스위스로 간 위그노는 정밀시계산업과 금융업

던 순간은 십자가의 고난을 가운데 있을 때였다. 저들은 그 속에서 더욱 정화되고 단련되며 강해졌다. 둘째는 레지스터 정신이다. 레지스터(Resister)는 개신교 신자들의 좌우명과 정체성을 대변하는 말이다. 레지스터는 위그노의 정신을 이어간 현대사의 자존심을 지켜낸 레지스탕스(Resistance)의 유래가 되었다. 저항정신은 프랑스인들의 가슴에 늘 살아 있다. 이 정신은 1789년 부패한 왕권에 맞섰던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원 스토리 21강 / 제물, 제사, 제사장 그리고 거룩(레 1-22장)

제물, 제사, 제사장 그리고 거룩

이제 레위기로 들어갑니다. 레위기는 '내위기'라고 이름이 붙을 만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성경이지만 역시나 'One Story' 관점에서 하나님께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관계의 회복에 초점을 둔다면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이야기를 시종일관 변함없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 11:45)라고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고 '제사장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에게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죄를

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됨' 혹은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신들과 우상들로부터 하나님에게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제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 형편에 따라 소, 양, 염소 또는 비둘기등을 드렸고 제사

를 드리는 제사장들이나 만군의 여호와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라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떨치었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안수하여 죄를 전가한 후에 그 제물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사방에 뿌린 후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단 위에서 그 뜯 각과 머리와 기름을 그 내장과 정강이와 함께 전부를 불살라 드렸습니.

제사의 가장 큰 의미는 '대속'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를 제물에 전가하여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에게로 구별'

의 종류에 따라 곡식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물은 반드시 '흠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번제'(레 1:3,10, 22:19, 23:12,18), '화목제'(레 3:1,6), '속죄제'(레 4:3,23,28,32, 9:2,3), '속건제'(레 5:15,18, 6:6, 14:10)의 모든 제사에 적용이 되었고 '소제'는 '고운 가루'(레 2:1,2,4,5,7, 5:11, 6:15,20, 7:12, 14:10,21, 23:13,17, 24:5)로 하였습니다. 흠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단지 제물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물 중 기름과 피는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레 3:17, 8:22-27). 그리고 소제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을 수 없었고(레 2:11) 언약의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했습니다(레 2:13).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 끝에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제물에 대해 '내 이름을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와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러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말 1:6-8)고 하시며 한탄하셨습니다.

제사

제사에는 5종류가 있었습니다. 그중 소제를 제외하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로 제물로는 주로 소, 양 그리고 염소를 사용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 머리에

치워야하는 제사자 대신 그 제물을 희생시킴으로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제사는 고의로 범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죄를 용서함 받는 장치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반복하였고 제사도 반복하였습니다.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으려는 통회와 자복은 사라지고 제사가 형식적인 일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제사에 대해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사 1:11-13)고 한탄하셨습니다.

제물과 제사에서 제사장으로

성막이 만들어지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가인과 아벨(창 4:1-4)을 시작으로 노아(창 8:20)와 아브라함(창 12:8, 13:4) 그리고 이삭(창 26:25)과 야곱(창 33:20, 35:7) 등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제사를 주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제물과 제사보다 더 중

사자들입니다.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듯이 제사장들도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결투를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출 40:13-15)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하지도 온전하지도 않았고 흠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첫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출 32:1-6) 그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로 대제사장직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던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었습니다(레 10:1-7). 또한 후대에는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그의 아들들이 흠과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삼상 1:12-17, 2:22-36).

아론이 제사장 위임을 받고 드린 첫 제사는 흠 없는 제물을 사용하여(레 9:2,3) 하나님께 모세에게 명령하신대로(레 9:10,21) 드림으로 그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레 9:24).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한 것입니다. 선지서에서는 제사장들이 권력으로 다스렸고(렘 5:31) 거짓을 행했고(렘 6:13, 8:10) 사악했으며(렘 23:11) 이득을 위하여 교훈했고(미 3:11)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으며(슥 3:4)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음을(말 1:6) 지적하고 있습니다. hfamilyfa@gmail.com

제사장

성막 제작 이후 흠 없는 제물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제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강하고 담대하라 (수 1:1~9) 찬 347장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수 1:1~2).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로 뽑혔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은 두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더 강력한 무기나, 더 좋은 전술과 전략 등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어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절망의 순간에도 강하고 담대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화 하나님께 항복하라 (수 2:8~14) 찬 516장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 조입의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군사들이 들이닥쳐 정탐꾼을 찾을 때, 라합은 필사적으로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탐꾼들이 믿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처럼 항복하는 자들은 생명이며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의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항복하는 자들은 다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목적은 '죽임'이 아니라 '살려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항복함으로 생명을 누립니다.

수 요단을 건너다 (수 3:1~17) 찬 448장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성결해야 합니다(수 3:5). 말과 행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성결입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 물을 밟았더니 요단강 물이 멈추고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주눅이 들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결'한 삶을 살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은 갈라지고 열릴 것입니다. '요단'이라는 이름의 '상황과 문제들'을 믿음으로 밟습니다.

목 길갈에 세운 기념비 (수 4:19~24) 찬 488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단을 건널 때 취한 열 두 개의 돌을 길갈에 세웁니다. 그 열두 돌을 길갈에 기념비로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을 자손 대대로 알려서, 그

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음란하고 쾌역한 이방 문화를 접하게 될 것이며, 그 문화는 자녀들을 유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음란과 쾌역의 문화를 타고 사단은 우리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 줄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 할례를 행하다 (수 5:2~5) 찬 549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야 할 장정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은 남자는 최소 3일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군사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전쟁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자신의 힘으로 싸우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토 여리고앞에서도 순종하라 (수 6:1~7) 찬 352장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중앙 중심부인 여리고 성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세 동안은 여리고 성 주위를 한 번씩 돌았고,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으며 백성들은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철옹성 '여리고'와 같은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독교 교육 (8)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등록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요즘 캠퍼스에는 2022~2023학년도 신입생들의 오리엔테이션과 등록이 한창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참석하는 학생과 부모가 많아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 이틀간의 오리엔테이션과 등록을 8번 실시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는 학생들과 부모들의 얼굴에 흥분과 불안의 감정이 역력합니다. 교직원들은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열심히 애씁니다.

대학교는 학문과 기술을 연마하는 곳입니다. 동시에 평생의 친구를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학교에서 배운 학문이나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히기도 하고, 급속도로 변하는 사회에서 금방 쓸모없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학교에서 사귀는 오랜 친구는 동반자로 남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학문과 기술을 연마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1960년 뉴욕 퀸즈 출신의 유대인 아트 가펄클(Arthur "Art" Garfunkel)이라는 학생이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 건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버펄로에서 온 샌디 그린버그(Sandy Greenberg)라는 학생을 만났습니다. 문학과 음악에 심취해 있던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둘은 같은 방을 배정받고 단짝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친구가 되자고 약속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샌디는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일시적인 결막염이라고 진단했지만, 시력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얼마 후 안과 전문의한테서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곧 시신경이 파괴되어 앞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샌디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결국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난한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좌절된 마음에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트가 찾아왔습니다. 대학에서 만난 절친은 샌디가 자기 인생을 포기할까 봐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비행기를 타고 버펄로까지 온 겁니다. 아트는 친구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곁에서 도와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면서, 대학 생활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도록 설득했습니다.

아트는 자신의 약속대로 샌디와 항상 함께 다니며 눈이 되어주었습니다. 친구가 비록 어둠 속에 갇혀 있어도 절대 외롭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장님이 된 친구의 상황과 동일시하는 뜻에서 자신을 "어둠(Darkness)"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어둠이 책을 읽어줄게" 같은 식으로 말했습니다. 아트는 샌디를 돕기 위해 자신의 일과를 샌디의 스케줄에 맞췄습니다.

어느 날 두 친구는 그랜드 센트럴 역(Grand Central Station)에서 많은 사람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트는 갑자기 꼭 가봐야 할 데가 있다며 샌디를 혼자 두고 떠났습니다. 샌디는 겁에 질린 채 사람들에게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져 다리가 까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두어 시간 동안 고생해서 드디어 지하철을

탔습니다. 목적지인 116 가에서 내렸을 때 어떤 사람이 부딪히면서 "미안합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샌디는 순간적으로 그것이 아트의 목소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아트는 꼭 가봐야 할 데가 있다며 눈먼 친구를 혼자 두고 떠났지만, 그 친구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뒤따라갔던 것입니다. 나중에 샌디는 그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경험은 내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해 준 내 친구가 정말 고맙습니다."

그 후 샌디는 컬럼비아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Harvard)와 옥스퍼드(Oxford)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랑했던 수(Sue)와 결혼을 하고 매우 성공적인 기업가와 자선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한번은 샌디가 옥스포드에서 공부할 때 아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트는 고등학교 친구인 폴 사이먼(Paul Simon)과 포크 락 듀오를 결성했는데, 첫 앨범을 취입하기 위해 400불이 급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샌디와 그의 아내는 은행에 404불이 있었습니다. 샌디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아트와 폴의 첫 앨범은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곡이 히트를 쳐서 1년 후에 인기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노래가 "침묵의 소리(The Sounds of Silence)"라는 곡입니다. 그 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녕, 어둠, 내 오랜 친구>Hello, Darkness, my old friend)." 그것은 바로 샌디가 아트에게 항상 했던 인사였습니다. 그 후 사이먼과 가펄클은 세계 가요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듀엣가수가 되었습니다.

두 명의 컬럼비아 대학교 졸업생, 그들은 각자 세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절친입니다. 샌디의 회고록(Hello Darkness, My Old Friend: How Daring Dreams and Unyielding Friendship Turned One Man's Blindness into an Extraordinary Vision for Life)에서 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샌디와 친구가 된 순간 나의 진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나 스스로 보기에 좀 더 좋은 놀이 됐고,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친구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아트를 친구로 만난 샌디는 스스로를 "세상 최고의 행운아"라고 묘사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잘 졸업한 신입생들이 오리엔테이션과 등록을 위해 분주한 것을 보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요한복음 15:13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신입생들 가운데서 "아트와 샌디" 같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jonk@dbu.edu

2022년 성경 암송 대회

최우수상: 상금 \$1000과 메달 및 상장
한국어부(영어부 동일)
▶ 1등상: \$500
▶ 2등상: \$300
▶ 3등상: \$150
▶ 장려상: 0명 - 상품
▶ 최연소성과 최고령상: 상품 및 상장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인간 언어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는 일이며 기도 생활을 더 확고하게 해 줍니다.

성경을 많이 자주 암송 할수록 바로 내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확신 있게 서 있을 수 있는 성경 암송 대회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권합니다.

일시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장소 미정(추후 발표)

참가 자격 한어부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연령 제한 없음)
영어부 - 미국 내 한인 교회(EM 포함) 및 한인 기독교 단체 소속 재학생 (초등학교 - 대학원)

암송 성경책 1. 한국어 성경: 개역, 개역 개정, 새번역 중
2. 영어 성경: NIV, KJV(or NKJV) 중 택일

신청서 제출처 The Lord's Table Mission USA (주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 신청서와 암송 범위는 연락 주시면 곧바로 이메일, 카톡, 메세지,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참가비 \$30 (식사와 간식 및 사무비 - 7월 30일 이후 \$50)

신청 마감 9월 10일 우편물까지

문의처 주님의 식탁 선교회 (35-14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4)
T. 347-559-3030, 718-886-3730, appa2God@gmail.com

공동주최: 주님의 식탁 선교회 **중앙장의사** 주관: 하늘가족

광고후원: 뉴욕교회협의회, 단비기독교TV, CTS뉴욕, KCBN 미주기독교방송, 국민일보 USA, 미주크리스찬, 복음뉴스, 아멘넷, 뉴욕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상품후원: 뉴욕교회 (회장: 김희복 목사), 뉴욕교회이사회 (김일태 이사장), 미주예장합동 (회장: 안재도 목사), 펠릭한인회 (오대석 목사)
행사후원: 뉴저지평화기도원 (김중철 원장), 뉴저지언어사 (대표: 김 기) *후원 하실 분은 연락 주세요



신코 펴기

아르헨티나 - 파타고니아

살름. 파타고니아(CHOELE CHOEL, ARGENTINA)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우진 선교사 가정입니다. 모두 평안하십니까.

육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2 ONEWAY 캠프-루이스벨트란

2022년은 저희에게 많은 도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 해로 시작하게 해주셨는데 벌써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1월 17일부터 22일 6일동안 루이스벨트란 소재 초등학교 101에서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건우와 민우가 미국에 있는 대학 진학을 위해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와4일동안 내린 비로 인해 모든 일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열정과 믿음으로 부에노스에서 이곳까지 와서 함께 어린이들을 섬겨준 베델교회 청년부팀으로 인해 큰 힘을 실어주셔서 이곳의 현지 봉사자들과 함께 모든 일정들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곳 현지의 학교는 영어서류를 처음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방학이라는 공백기가 있어서 마감날짜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와4일동안 내린 비로 인해 모든 일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열정과 믿음으로 부에노스에서 이곳까지 와서 함께 어린이들을 섬겨준 베델교회 청년부팀으로 인해 큰 힘을 실어주셔서 이곳의 현지 봉사자들과 함께 모든 일정들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건우와 민우가 실망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섭리임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민우는 4월에 미시건으로 건너가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며 그곳에서 대학진학을 알아보고 있고 건우는 저희를 도와 SAT 준비를 하며 대학진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을 믿고 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간다면 반드시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드러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 그리고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것은 언제나

아직 결정된것도 열려진 길도 보이지 않지만 이 시기들을 거치며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길 위에 놓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을 믿고 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간다면 반드시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드러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 그리고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것은 언제나

이곳 선교지에서 9년동안 저희와 함께 많은 일들을 감당해낸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

안전함을 믿습니다. 어린이들을 직접 대하며 섬겨준 모든 봉사팀과 마지막날에 성경책을 선물로 주시고 캠프내내 입을 옷을 만들어 보내주시고 아이들 한명마다 중보기도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팬데믹동안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채 있습니다. 교회들이 다시 주일학교를 시작하고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4번의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한상정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교재를 무료로 제공해주시며 활용법들을 강의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참여한 교회와 주일학교 교사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계속 연락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와 지속적인 만남속에서 사역안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하고 영적으로 서로 힘줄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먼저 말씀으로 잘 세워지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일학교 교사 수련회를 기도합니다.

세미나 이후에 각 마을에서 새로이 주일학교를 시작하는 교회들이 생겨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교회안에 주일학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또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디오 사역 - CAMINANDO JUNTOS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어린이 복음방송 CAMINANDO JUNTOS(동행)이 라디오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당자 미리안과 매주 초대되는 어린이들이 함께 여여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 어린이들과 가족이 다 함께 말씀안에서 하나되기를 바랍니다.

몇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라디오 방송을 꾸꾸기도 합니다. CIVIS 사역을 통해 직접적으로는 복음이 전달되고 간접적으로는 미래의 꿈나무들이



각 사역마다 열매맺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해주세요!

BAM-고센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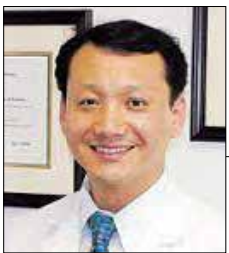
감사하게도 고센농장에 현성권 장로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막막하게 시작했던 농장에 활력이 생겨나고 장로님의 헌신으로 많은 일들이 자리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일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는한 어려움과 비교안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열매들이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 1. 김우진 박경희 김건우 김민우의 영적 육적인 건강을 위해
2. 건우와 민우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인도해주시도록
3. 집전축을 잘 마쳐서 이사나갈 수 있고 앞으로의 직업훈련학교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4. 직업훈련학교의 비전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동역자들과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5. CIVIS와 모든 사역들이 재정비 될 수 있도록 civisargentina@gmail.com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기관지 천식

의학 발전으로 심혈관 질환이나 각종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도시화로 인해서 증가하는 질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기관지 천식이다. 미국에서는 천식의 유병률과 사망률

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 민족에게 두드러진다. 이들 소수 민족이 도시에 많이 몰려 사는 것도 원인이겠지만 병원을 이용할 기회가 적고 예방 교육이 부족한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은행에 근무하는 30대 초반의 남성인 전 씨는 일주일 전에 감기에 걸리고 나서 계속되는 기침과 호흡곤란으로 이틀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오랫동안 기관지 천식을 앓고 있던 전 씨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했으나 일시적으로 숨쉬기가

발했다. 기관지 천식으로 항상 기관지 확장제를 휴대하고 다녔고 스테로이드 흡입제는 복용하지 않았다. 가족 중에 전 씨 외에는 다른 천식 환자는 없었고 담배나 술은 즐기지 않았다. 검진 상 혈압은 정상이었으나 맥박은 분당 100회, 호흡수도

먼지나 곰팡이 등 유발인자를 피해야

호전될 뿐이었다. 기침과 흰 가래가 끊임없이 나왔고 걸을 때 호흡곤란이 심했다. 또 가슴이 빠근하게 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천명을 들을 수 있었다. 전씨는 2년 전에 천식이라는 진단을 처음 받았는데 이후 감기에 걸릴 때마다 천식 증상이 재

분당 18회로 빨랐다. 전 씨는 육안으로 볼 때 호흡곤란이 보였고 청진상 천명이 심했으며 혈중 산도 농도는 93퍼센트로 낮아져 있었다. 가슴 엑스선 검사는 정상이었지만 폐 기능 검사상 폐 기능이 현저하게 줄어있었다. 전 씨는 병력과 증상 및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천식이 악화한 것으로 진단 받았다. 치료는 스테로이드 제제와 항생제, 기관지 확장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호흡기 증상이 더 악화하면 주위 응급실로 가도록 했다. 전 씨는 3일 후부터 점차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느꼈

동물의 털, 담배 연기 등 각종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인자와 유사하다. 또 집안의 바퀴벌레도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 감기와 같은 호흡기 감염도 흔한 천식 유발인자이고 감자나 새우, 맥주, 와인 등 아황산염이 포함된 음식이나 해열제로 흔히 복용하는 아스피린과 모트린 같은 약물도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천식의 치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유발인자를 잘 알고 피하는 것이다. 천식은 단계별로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천식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는 흡입성 스테로이드제를 끊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천식이 악화하는 경우는 조기에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2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북음사 562-865-4949,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도르가 서점 714-636-7430,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추천 도서



하나님을 말하다 린 켈러 두란노,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김성경, 토기장이, 먹다 듣다 걷다 이영진 두란노, 내 마음도 설곳이 필요해요 유은정 규장, 한달란트 박성현 두란노,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지선 문학동네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이영선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할렐루야 2022 뉴욕복음화대회

Hallelujah New York Evangelical Crusade

주제 북한선교와 팬데믹 후 **하나님의 항해법**

○ 일시 | 2022년 7월 28일(목)-31일(주일)

○ 장소 | **프라미스교회** (허연행목사시무)

130-30 31st Ave., Flushing, NY 11354

집 회	강 사
7/28(목) 저녁 7:30	임현수 목사
7/29(금) 저녁 7:30	임현수 목사
7/30(토) 저녁 7:30	최 혁 목사
7/31(주일) 오후 5:00	최 혁 목사

선교헌금 및 장학금 후원 요청

1. 북한선교 후원금을 받습니다
2. 장학금 후원금을 받습니다
3. 홀리스 및 선교회 후원금을 받습니다
4. 현재 어렵고 힘든 교회를 위해 후원금을 받습니다



- 보낼곳 : 뉴욕교협 사무실
- 주 소 : 244-97 61st Ave.,
Little Neck, NY 11362
- Pay to : "CKC"

강사



임현수 목사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목사
북한 선교사



최 혁 목사

LA 주안예교회 담임목사
남가주교협 45대회장 역임



강사: 임지윤 목사

- 어린양개혁교회 2세 목사
- RCA 교단 목사
- 유년부 분과 위원장

할렐루야 어린이집회

- 일시: 2022/7/28(목)-/31(주일)
- 장소: 프라미스교회

* 성인집회와
같은 시간



교역자 및 평인도 지도자 세미나

- 일시: 8/1(월) 오전 10시
- 장소: 프라미스교회
- 강사: 최 혁 목사

할렐루야 2022 청소년 복음화대회

2022. 9. 16(금)-17(토)
<장소: 프라미스교회>



서틀운행

- 장소 | 노던 한양마트 앞
- 시간 | 7/28(목),29(금),30(토), 6:00pm, 6:30pm
7/31(주일) 4:00pm, 4:30pm,

주최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244-97 61st Ave., Little Neck, NY 11362
T. 718.279.1414 / F. 718.278.5838
Email: nyckcg@gmail.com / www.nyckcg.org

총무: 임영건 목사 (631.327.8046)
서기: 김정길 목사 (917.682.4566)



대회장



회장 김희복 목사

준비위원장



이기응 목사

부대회장

부회장: 이준성 목사
부회장: 이춘범 장로
이사장: 김일태